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x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연극 '결혼'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⑭

참다가 참다가

특집좌담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선임 마무리
그 의미와 성과, 과제



연극 '결혼'

<사진제공_ 대전예술의전당>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특별출연 조근호 (반주자)

금정문화회관 개관 20돌 기획공연

오충근의
즐거움
콘서트 I
고고한 콘서트

행복의 비브라토

2020년 9월 19일 (토)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축전 서곡 작품96 Festive Overture in A Major, Op.96
패리시 알바스 E. Parish-Alvars	하프 협주곡 g단조 작품81 Harp Concerto in g minor, Op.81 III.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Waltz of the Flowers> from Ballet Suite 'The Nutcracker' Op.71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92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IV.



협연 황세희 (하프)

| 주 최 | 금정문화회관

| 입장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입장연령 | 만 7세 이상

| 예 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 할 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 1인), 의사자, 의사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20% 20인 이상 단체, 정기회원(본인), 예술인패스(본인)

| 공연문의 | 051.519.5661~3

10% 금정구민(본인)

www.art.geumjeong.go.kr

*예매는 1일 전 오후 5시까지, 공연 당일 잔여좌석에 한해 1시간 전부터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최석태의 부산칸타타 및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을 노래하다

1부 Kim Andre Arnesen
 Flight song/Even When He Is Silent

Eriks Esenvalds
 The Stars/Rivers of Light

Ola Gjeilo
 Dark Night of the Soul

2부 최석태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이야기

2020. 9. 22(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관람료 | 균일 10,000원
 | 예매 | www.bscc.or.kr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할인 | 50%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30%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학생(초·중·고·대학생)



지휘 이기선



작곡 최석태



작사·시나리오 고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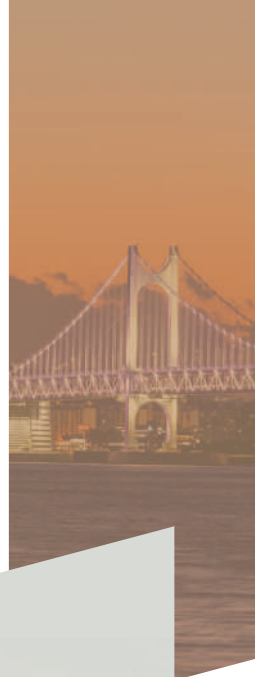
작곡 Kim Andre Arnesen



작곡 Eriks Esenvalds



작곡 Ola Gjeilo





2020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2020. 9. 25 | 금 |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 박상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태평소 김지연



해금 이선영



25현 가야금 이전매리



소금 김의진



거문고 황진호



모듬북 이산



모듬북 한민희



모듬북 김정우

연주곡목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편곡 계성원, 태평소 김지연

해금협주곡 [Verses]
작곡 토마스 오스본, 해금 이선영

25현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작곡 이건용, 25현 가야금 이전매리

소금협주곡 [길]
작곡 이준호, 소금 김의진

거문고 협주곡 [달무리]
작곡 정대석, 거문고 황진호

모듬북 협주곡 [태]
작곡 이경섭, 모듬북 이산, 한민희, 김정우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051-607-6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서틀버스 운행(무료) · 대연역 출발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운영), 공연후 1회운영

제75회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Ⅲ 낭만시대

금난새 &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낭만으로의 초대’

음속도명품콘서트 세 번째 시리즈-낭만시대가 오는 9월 26일(토) 오후 4시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명품 콘서트에서는 작곡가 '그리그'와 '차이콥스키'의 곡으로 달콤한 서정이 배어있는 낭만시대의 깊은 감동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지휘자: 금난새 /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 소프라노: 김순영 / 바이올린: 김혜지

2020. 9.26.(토) 16:00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생활 속 거리두기
←한 칸 띄어 건너지 않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Ⅳ 현대시대 10.6.(화) 19:30

쇼스타코비치 No.5 &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

2020

시민 FOLK MUSIC

민속축제

힘내라, 부산!



일시 **20.9.18(금) ~ 10.30(금)**

매주 **금요일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 노신사밴드, 연관호 콰텟 9.18(금)

· 이지아, 아카펠라그룹 비타민 9.25(금)

· 판프로젝트, WINDA(윈다) 10.16(금)

· 국악퓨전프로젝트팀 '뜨락', 다ONE 10.23(금)

· 하지림 재즈밴드, 부산시립합창단 10.30(금)

※ 우천시 취소

CONTENTS

9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September 2020 Vol.345

2020년 9월호 통권 34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연극 '결혼'

12 Column

부산스러워지길 바라는 부산의 가을

14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⑭
참다가 참다가

16 반갑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이정윤

18 특집좌담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 예술감독 선임 마무리
그 의미와 성과, 과제를 짚어 본다

30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이웃과 함께 읽고 보고 즐긴다
망미골목길 '비온후책'

32 Academy Class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화가가 그린 비너스'

35 Preview

38 Issue

9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44 Review

48 Program Guide

58 New Book

59 BSCC News

62 전시관람기

부산시민회관 47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다

64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⑲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0 SEPTEMBER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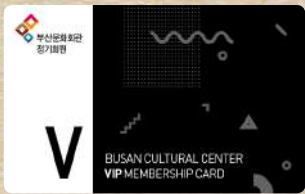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VIP



SPECIAL



MEMBER

고령인원 | 노인회원 | 단
 학생인원 | 무정회원 | 단



SUN	MON	TUE	WED
<p>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6</p>	<p>7</p>	<p>1</p> <p>◆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정기연주회 19:00 참 부산대학교(510-1747)</p>	<p>2</p>
<p>13</p> <p>제38회 KBS부산 무용콩쿠르(예선) 09: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서영채·정지유 조인트 리사이틀 15:00 참 초대/최미정(010-6401-8846) 박재혁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17:00 소 드림문화예술(010-3423-4790)</p>	<p>14</p>	<p>15</p> <p>◆ 고신 클라비어 창단 연주회 '건반의 이야기들' 19:30 참 전석 1만원/고신 클라비어(010-9614-8088)</p>	<p>1</p> <p>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 '황제' 19:30 대 7만원·5만원·2만원/P Quartet JACE 창단연주 19:30 참 전석 2만원/Quartet</p>
<p>20</p> <p>로시니 작은 장엄미사 18:00 대 센텀합창단(010-6346-6058) ◆ (재)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_연극 '결혼' 15:0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김덕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14:00 참 3만원·2만원/손성준(010-4214-1339) 2020 부산 발레 페스티벌 18:00 대 부산발레시어터(513-7779) 전국국악경연대회 제27회 부산국악대전 09:00 소 (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21</p>	<p>22</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최석태의 부산산타타 및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제23회 부산제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힘을 위한 세레나데' 19:30 참 전석 2만원/예술기획(010-4909-7444)</p>	<p>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Hi, Beethoven'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607-3111~3) 독우회 제52회 정기연주회 'Hi, Beethoven' 19:30 중 초대/독우회(010-2833-3932)</p>
<p>27</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십이야' 15:00 소 4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8</p> <p>(사)빛을나누는사람들 '그 시절 부산의 노래 5' 19:30 소 초대/(사)빛을나누는사람들(010-2833-3932)</p>	<p>29</p> <p>2020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_뮤지컬 명작극장 '레 미제라블' 19:00 소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9	10	11	12
6	17	18	19
3	24	25	26
0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Ⅵ 19:3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Lyrical' 19:30
캠 초대/유주영(010-6630-5535)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2:00, 16:0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제8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17:00
캠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20 신라대학교 무용전공 졸업작품 발표회 19:00
소 초대/신라대학교(999-530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6회 부산국악축제 19:0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제38회 KBS부산 무용콩쿠르(예선) 09: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17:00
캠 초대/심하정(010-3284-9428)

작곡그룹 An-ti Stimmung 20주년 기념 작품발표회 19:30
캠 최민경(010-9496-2687)
 신영숙의 더 뮤지컬 19:30
대 부산CBS(636-0050)
 발달장애청년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 특별공연
 '올리버 트위스트' 17:00
소 (사)문화복지공감 부산장애인지원센터
 (926-0522)

2020년 제21회 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19:0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재)부산문화회관 2020 시민뜨락축제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_연극
 '결혼' 15:0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나눔플루트앙상블 'The Magic Flute' 17:00
캠 전석 2만원/나눔플루트앙상블(010-9371-8987)
 전국국악경연대회 제27회 부산국악대전 09:00
대 소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추계연주회 19:30
중 김명수(010-3130-1353)
 작곡동인 세움 제9회 작곡 정기 발표회 'Pulse of
 music' 19:30
캠 초대/작곡동인 세움(010-3338-1906)
 제7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대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00
중 전석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재)부산문화회관 2020 시민뜨락축제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38회 KBS부산 무용콩쿠르(본선) 09: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십이야' 15:00
소 4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랑여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머느리'
 9월 15일(화)-10월 25일(일) 오전 11:00
 (월·수요일 공연없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ARS 1번)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동주대학교 광고시각디자인과
 제7회 고교교사 기획 초대전
 9월 1일(화)-9월 7일(월) 제1전시실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220-3324)
 2020년 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9월 14일(월)-9월 19일(토) 제1, 2전시실
 (사)한국서도예술협회(010-2839-1842)

2020 부산광역시
 문화상수상자 합동전시회
 9월 21일(월)-9월 27일(일) 제1전시실
 부산광역시 문화상수상자회
 (010-4572-9991)
 빛을나누는사람들 아트전 3
 9월 29일(화)-10월 1일(목) 제1전시실
 (사)빛을나누는사람들
 (010-2833-3932)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연극

결혼

결혼을 둘러싼 욕망과 인간의 본성을 날카로운 시선과 뼈있는 웃음으로 통찰한 연극 '결혼'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오페라 '리골레토'를 자체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전예술의전당과 공동제작으로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고찰한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결혼'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의 주요 공연장 간 레퍼토리 교류,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시도되는 작품이자 연극계 황금콤비라 불리는 김광보 연출, 고연옥 작가의 신작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혼을 둘러싼 욕망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고골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전통의 토대를 이룬 작가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사실주의적 묘사 기법과 풍자적 문체로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후대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833년 집필한 희극 '결혼'은 신분상승 수단이자 거래로 전락해버린 '결혼'을 대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거짓이 삶의 진실이 되어버린 인간 본성을 통렬히 비판하는 작품이다. 많은 고골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당대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작품 속 결혼을 꿈꾸는 남녀와 이들을 엮는 중매쟁이 모두는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허세와 거짓말만 오갈 뿐, 진정한 사랑 따윈 없다. '결혼'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에 네다섯 명의 구혼자들이 벌이는 해프닝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코믹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과연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그 과정에서 고골의 전매특허인 '본질을 상실한 허상만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폭로되고, 이 허상의 사회에서 결혼은 단지 '계산'과 '거래'의 산물임을 드러낸다. 부(富)가 있어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귀족과 결혼하며 이 결혼에는 나이도, 성품도, 가치관도, 사랑도, 관계의 깊이도, 더불어 함께 지낸 시간도 그 무엇도

9. 18^{FRI} - 20^{SUN}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14세 이상 관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맞선이란 원래
아주 이상한 핑계로
만나서 서로
한번씩 들었다 놔다
해보는 거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골은 이 작품에서 이런 결혼의 허위성을 마음껏 조롱하고 폭로한다.

2020년에 선보이는 연극 '결혼'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 젠더 스와프(gender swap,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성별 전환을 의미)를 활용, 원작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의 상황을 서로 바꿈으로써 원작보다 깊고 촌촌하게 짜인 의미망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 풋갈요썬, 문관 행정법률가인 그녀는 중매쟁이 클라가 추천하는 상인 아가몬드를 만나러 가고, 친구 카차레의 도움으로 또 다른 4명의 구혼자를 물리치고 아가몬드의 선택을 받게 된다. 사랑에 빠져버린 듯한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식을 열기로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풋갈요썬은 원작에서처럼 창문 밖으로 도망치고 만다.

연극계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 신작

연극 '결혼'은 연극계의 오랜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가 함께하는 신작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둘 다 부산 출신으로, '연극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아야 한다는 신념이 두 사람의 접점'이라는 연출가 김광보와 작가 고연옥은 지난 2000년 고연옥 작가의 첫 희곡 '인류 최초의 키스'로 처음 만난 후 그동안 웃어라 무덤야, 주인이 오셨다, 내 이름은 강, 나는 형제다, 왕위주장자들(각색), 그리고 지난해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까지 수 편의 작품을 함께 해오고 있다.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2009년~2011년)을 역임하기도 한 연출가 김광보는 이른바 '민보연(민고 보는 연출)'이라는 별명을 가진 매우 성공한 연출가이다. 그를 설명하는 말 중에

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미니멀리즘'과 '배우 중심'으로, 가능하면 무대 위에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 '미니멀리즘'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공간을 배우와 연기로 채우겠다는 것이 '배우 중심'이다. 김광보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극단 청우 대표로 활동했으며,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2012년~2016년 2월), 서울시극단 단장(2015년~2020년 5월)을 역임했다. 주요 대표작으로는 물고기 인간, 사막 속의 흰개미, 옥상 밭 고추는 왜, 사회의 기동들, 줄리어스 시저, 주인이 오셨다, 웃어라 무덤야 등이 있으며, 2017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2017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2016년 제26회 이해랑 연극상, 2014년 제51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2012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대상·연출상 등 다수 수상한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있는 고연옥은 그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의 물신주의와 인간성 타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작품을 주로 발표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손님들, 칼집 속에 아버지, 처의 감각, 검은 입김의 신, 꿈의 아내, 나는 형제다, 내 이름은 강, 달이 물로 걸어오듯 등이 있으며, 2018 제54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2017 제11회 차범석 희곡상, 2015 제5회 벽산희곡상, 2013년 제21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2011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희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여기에 '햇빛샤워'의 히로인 김정민, '죄와 벌'의 백성철을 비롯해 정혜영, 박해원, 이혜미, 조수하, 민예지, 박진호, 이동혁 등 치열한 오디션을 뚫은 배우들의 개성넘치는 무대가 관객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결혼을 할지 말지 더 생각하다



정예지
대전예술의전당
기획운영팀 PD

결혼에 관한 한 편의 블랙코미디

국내 정상급 연출가와 함께 셰익스피어, 안톤 체호프, 헨릭 입센, 도스토옙스키 등의 고전을 재해석한 레퍼토리를 개척해온 대전예술의전당이 올해 자체제작 시리즈 열다섯 번째 작품으로 고골의 '결혼'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공동제작으로 선보인다.

“넌 진정한 친구야”

2001년 연극 ‘인류 최초의 키스로 만나 현재까지 20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연극계 최고 찰떡 콤비 김광보 연출과 고연옥 작가. ‘웃어라 무덤아’(2003), ‘발자국 안에서’(2007), ‘주인이 오셨다’(2011), ‘나는 형제다’(2015), ‘왕위 주장자들’(2017) 등 사회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문제작으로 평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이들이 보여줄 이번 작품 ‘결혼’은 풍자와 해학의 이야기꾼 고골의 작품을 각색한 신작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날카로운 시선의 고연옥 작가와 이 시대 미니멀리스트 김광보 연출이 다시 만나 결혼에 관한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완성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쟁이요”

원작을 쓴 고골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에 깊이 침투한 ‘거짓말’을 섬세하게 통찰한 작가였으며, 그가 그린 세계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더욱더 현실적이다. 등장인물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작품은 다양한 거짓말로 가득하다. 거짓말 없이는 중매도 구혼도 불가능하고, 민망



간 숨어 죽어.

그냥 해!

한 상황을 모면하기도 체면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넘치는 자기애,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지적 허영심 등 내면에 있는 다양한 개인의 위선과 욕망을 교묘하게 숨긴 채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공연을 보는 동시에 ‘오늘’ 내가 나눈 대화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결혼할지 말지 결정 안 했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마음속 한구석, 숙제처럼 숨어있는 ‘결혼’이라는 주제는 모두를 한 번쯤 고민하게 한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랑’을 고민하고 결정하기도 어렵는데, 심지어 그 모두를 결정해도 ‘왜’라는 더 어려운 문제가 다시 튀어나온다. “아 신경 쓸 게 왜 이리 많은지. 이것저것 형식 차리고 현실성 따지고 의무감 차리고! 사랑하는 나 풋칼요썬, 결혼한다는 건 참 성가신 일이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매쟁이에게 여러 남자를 소개받던 주인공 풋칼요썬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매일 고민 중이고, 먼저 그 고민의 과정을 거쳐 결혼을 했던 절친 카차레는 “결혼은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이야.”라고 하면서도 풋칼요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들이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



람들이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며 은근히 상대방을 디스하고 반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몰라”

매해 다양한 연출가와 함께 역량 있는 배우를 선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탄탄한 제작연극 필모를 쌓고 있는 대전예술의전당은 2020년 (재)부산문화회관과 공동제작을 통해 확장된 지역 간 문화교류사업을 도모한다. 연극 ‘결혼’은 지난해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맺었던 ‘전국 국립 및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 문화예술교류 협약’의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총 155명 응시자가 모인 공개 오디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힌 9명의 배우가 출연하며,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고 잘진 티키타카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다. 연극 ‘햇빛 샤워’로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받은 배우 김정민과 ‘죄와 벌’로 대전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백성철을 비롯한 매력 넘치는 배우들이 ‘연극은 관계의 미학’임을 강조하는 김광보 연출과 만나 함께 교감하며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부산스러워지길 바라는 부산의 가을

—

홍동식 편집위원,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부산은 요즘 부산스럽지 못하다. 긴 터널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번 여름, 긴 장마로 인해 크게 물난리를 겪었다. 올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유독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COVID19의 백신이 곧 상용화된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 여부에 여전히 긴 한숨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중얼거리 보지만 아직 터널 속이다.

부산스러웠던 평범한 부산의 상황을 돌이켜 본다

부산은 어제도 오늘도 부산스럽다. 말투와 억양이 강해 늘 대화는 전투적이다. 덩달아 행동도 부산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부산은 풍토적인 말과 글이 존재한다. 때로는 정겹다. 이런 부산스러움과 정겨움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요소들은 대한민국 제2의 항구도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도시만의 풍토적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어 재미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부산의 또 다른 문화적인 모습을 흥미롭게 재생하고 부산과 부산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된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남해안과 동해안에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어 각종 해산물도 풍부하고, 남북을 굽어 흐르는 낙동강 주위 기름진 농토에서 농산물도 넉넉하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통하여





이 도시의 형태는 여느 타 도시와 차별화되며 독특한 모습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부산에는 51개의 크고 작은 어항이 있으며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로는 김, 다시마, 미역, 멸치, 고등어 등이 있고 이러한 수산물을 통한 패키지와 물류에 따른 다양한 시각디자인의 형성, 180여 개나 되는 전통시장들 속에서도 부산만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의 산물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산만의 풍토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을 대변한다.

부산의 문화는 다양함이 존재한다. 그 속에 부산은 오늘도 축제 중이다. 롯데 타이언츠의 승부에 부산 갈매기를 목 놓아 노래하며 승부에 목숨을 건다. 감천동의 색깔과 일제시대의 비석들로 만든 집들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대변한다. 세계 유일한 유엔모지는 부산에만 존재한다. 묘지명에는 전투에 아리따운 청춘을 바친 이름이 진하게 새겨져 있다. 보수동 책방은 부산의 전통시장 중 유일한 고전 책을 파는 문자들의 집합 장소이다. 그리고 40계단은 부산의 애환을 얘기하는 곳이다. 관료적인 부산 시청에서, 대중교통 속에서, 부산의 산업 현장에서, 부산의 방언 속에서, 부산의 문화가 스며있는 이곳 저곳의 모습들로 오늘의 부산을 본다.

부산스러운 부산의 평범한 아름다운 날들을 보고 싶다

부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산스럽다는 말처럼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한 데가 있다. 거기에서 부산 사람의 말속에서는 꾸밈도 숨김도 없이 속에서부터 살아서 나와 밖으로 나온 말들이 빠르고, 직설적이고, 투박하고, 전투적이기까지 하다. 경상도 방언 중에서도 부산의 사투리는 타 지역의 방언보다 억양이 강하고 높아 타 지역 사람들이 보면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로 한다. 마스크를 낀 채로의 대화는 부산스러움이 전달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은 반도국으로서의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온 항구도시이다. 항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이다 보니 늘 바쁘고 활기차며 생동하고 늘 부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가 되어 버렸다. 부산은 오고 가는 관문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통 매체를 가지고 있다. 국제 공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버스, 지하철, 등대콜과 같은 많은 교통 매체는 국제화 도시 부산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 길을 가는 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도시 부산의 문화는 다채로운 축제와 같다. '부산하다'라는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서로 다른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지역 대표 스포츠인 야구에 광적인 부산 사람들이 부르는 부산 갈매기와 승리에 대한 열망은 가히 전투적이다. 일제 강점기의 비석들로 채워진 감천동은 역사적 지리적 특징으로 생겨난 문화를 대변한다. 보수동 책방은 부산에서 유일한 고전 책을 파는 오래된 문자들의 아지트 같고 부산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40계단은 잊혀가는 시간의 타임캡슐 같다.

수산에서 미래전략 산업인 스마트까지 부산은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한다. 상생과 공존의 화두를 가지고 국제화와 지속 가능 성장의 발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재래에서 전통으로 거듭나는 수산시장과 수산산업,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꿈꾸는 의류와 신발산업, 주류의 명가에서 명품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주류산업, 철강에서 자동차, 조선으로 이어지는 기계부품과 조선기자재 산업,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발전되는 영화산업, 스마트의 트렌드 속에서 지역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스마트 산업까지 다채로운 산업이 하모니를 이루며 국제화 도시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던 그때가 그립다.

God Bless Busan!

이번 가을, 아니 올겨울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부산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오길 간절히, 어렵지만 기대해 본다. 부산 예술인들의 부산함도 함께 보고 싶다.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14
참다가 참다가



동길산 시인
✉ dgs1116@hanmail.net

얼마나 참았으면 더는 참지 못하고

비 올 날씨가 아닌데
비가 온다
지나가는 비려니
하늘을 본다
하늘 한곳
구름 몇
사람도 그런 날 있다
보기에는 맑아 보여도
마음 한곳
구름 몇
참다가 참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비가 오는

동길산 詩 '참다가 참다가'

66

참다가 참다가 터지는 그런 날 있다
그렇긴 해도 당신 앞에선 참았으면 한다
맑은 하늘 군데군데 구름만 보였으면 한다

99

비 올 날씨가 아닌데 비가 온다. 맑은 하늘 군데군데 구름. 금방 지나가려니, 마당에 쪼그려 잡초를 뽑는다. 남은 풀은 절반 정도. 며칠이나 차일피일 미루던 일이고 이왕 차려입고 나왔으니 비가 오든 말든 끝을 보려는 마음이다.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목에 두른 수건. 복더위인데도 차림새가 무겁다. 여기는 모기 많은 산골. 마당이나 텃밭에서 일하려면 맨살을 최대한 감싸야 한다. 다시 차려입기 번거로우서라도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

비가 심술을 부린다. 지나갈 듯 지나갈 듯 지나가지 않는다. 완전히 차려입고 일하는 바람에 아까는 땀이 비 오듯 하더니 지금은 비가 땀 내리듯 한다. 비도 심술이고 땀도 심술이다. 그나마 밀짚모자가 가려줘서 비는 덜 맞는 기분이다.

옷은 차츰 젖어 간다. 어깻죽지가 젖어 가고 소매가 젖어 간다. 젖은 흙이 튕까 봐 소매 끝단을 접는다. 물기 스며들면서 흙이 축축해져 일하기는 편하다. 풀뿌리가 쑥쑥 빠진다. 그 재미에 열을 냈더니 허리가 뻣적지근하다.

허리 펼 겸 잠시 일어선다. 이왕 젖은 옷인데 싶어 빗물 고인 평상에 드러눕는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군데군데 구름이다. 등은 축축하지만 기분은 상쾌하다. 맑고 비 오는 날. 일 년에 이런 날이 몇 날이나 있을까.

비를 본다. 비 올 날씨가 아닌데 내리는 비. 얼마나 참았으면 더는 참지 못하고 이런 날씨에 내리는 걸까. 사람도 그런 날 있다. 참다가 참다가 터지는 날. 그렇긴 해도 당신 앞에선 끝내 참았으면 한다. 맑은 하늘 군데군데 구름만 보였으면 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이정윤



이상현 춤 비평가
본지 편집위원

(재)부산문화회관(아래 '문화회관')은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영입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수 후보자를 경연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것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애초 계획에서 4개월을 더 보냈고, 1년 7개월을 기다린 끝에 이정윤(44)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가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다. 이정윤 예술감독은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고등학생 때 운명처럼 춤을 만났고,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다.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째 주역무용수로 데뷔해 12년 4개월을 활동했다. 국립무용단에서 10년 이상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정윤 감독은 오랜 단체 생활로 잠재된 예술적 욕구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

Q 선정 방식이 경연이라 거부감이 있었을 텐데, 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경연은 피하고 싶었죠. 내 예술을 누군가의 잣대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경쟁 상대가 제 스승 연배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저했습니다. 옹한 이유는 먼저, 문화회관 대표이사님의 운영 철학 때문입니다. 어떤 단체와 작업할 때, 일을 하는 단체인지 관리운영만 하려는 단체인지부터 살핍니다. 여기에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공공무용단 자리를 두고 서열에 따라 차례로 앉는 듯한 한국 무용계 분위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상처받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제 또래나 후배들이 이런 결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한국 무용계의 풍토가 바뀌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 선배 세대를 타는 것이 아니라 40대인 우리 세대의 역할이 있고,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으

로 어쩌면 저를 움직이게 한 근원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산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고향이며 제 춤 여정을 시작한 곳이니깐요.

Q **작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풍’의 창작과정과 작품하면서 겪었던 시립무용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시간적으로 시립무용단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죠. 빠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결정했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스텝을 최소화했습니다. 공연 때도 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의상을 제외한 연출, 음악, 조명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전부 안았던 것이죠. ‘남풍’은 ‘시작’입니다. 제 춤의 시작이 여기 부산이고, 한국전쟁 때는 부산이 춤의 중심이었죠. 그 춤의 바람으로 우리의 춤이 다시 ‘시작’ 됐습니다. 평화의 바람, 대륙과 동아시아로 퍼지는 부산에서 부는 ‘남풍’을 담으려 했습니다. 연습기간에는 단원들 속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연습하고 작품을 올리면서 무용단의 장점을 찾으려 했고, 찾았습니다. 단원 연령대의 폭이 넓다는 점은 이용하기에 따라 큰 장점이 됩니다. 경력과 연령에 맞게 캐릭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리얼리티가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단원들의 경험치가 그리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있지만, 이를 뒤집으면 가능성과 나아갈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공무용단인 시립무용단의 정체성, 부산 무용계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무용단의 공공성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회관은 부산 문화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립무용단도 부산시민의 문화적 긍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유연성 같은 것이죠. 부산 무용계와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전통(민속)춤을 콘텐츠화할 때 ‘뎃배기라서 이 춤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관객이 궁금할 정도의 춤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두고 이 작품에 뎃배기 춤이 녹아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죠. 고유의 춤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색다른 춤 언어에 보편성을 담는 것이죠. 부산에도 춤이 팔리는 시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뮤지컬이니까, 유명한 외국작품이니까. 표가 팔리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춤의 가치를 높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시립무용단의 수준은 레퍼토리 공연, 상설공연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무용단도 다 하는 똑같은 춤으로는 고유의 레퍼토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콘텐츠 개발, 레퍼토리 개발이 절실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개인적인 부분과 공적 역할을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약하면, ‘자신감’과 ‘겸손’이었다. 이정운 예술감독은 40대의 패기와 도전의식 그리고 부산 춤의 역사와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을 잘 버무린 양념장처럼 조화롭게 갖추고 있었다. 남은 것은 이 양념으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이다.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 예술감독 선임 마무리
그 의미와 성과, 과제를 짚어 본다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예술감독 진용 갖춰

- + 부산시립예술단 관심 확산도 큰 성과
- + 추천제는 좋은 시도였지만 경선기간은 대안 찾아야

2020. 8. 12^수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회의실

지난 8월 12일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선임을 마지막으로 공식 이던 무용단, 극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부산시립예술단 신임 예술감독(예술감독, 수석지휘자, 수석안무가) 선임이 모두 마무리됐다. 무용단을 제외하고는 2019년에 선임이 완료되었고 무용단은 지난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선 공연이 7월로 연기된 바 있었다. 특히 4개 성인단체의 예술감독 선임은 그동안의 공개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전문가 추천위원회'를 도입, 그 어느 때보다 문화계와 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예술의 초대>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경선을 마무리하며 선임에 참여했던 추천위원, 심사위원, 평론가 좌담회를 갖고 그 의미와 성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 참석자 명단**
- 정두환(사회, 음악평론가)
 - 백현주(작곡가, 합창단 후보추천위원)
 - 안호상(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 무용단 후보추천위원)
 - 이상현(춤 비평가, 무용단 심사위원)
 - 이윤경(국악방송 미디어사업부장, 국악단 후보추천위원)
 - 주혜자(연극 연출가, 극단 후보추천위원)
 - 이용관(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 김현정(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정두환(사회, 음악평론가)

이용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독자들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예술감독 추천과 경선과정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말로 7개 시립예술단 중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6개 단체의 예술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술단 운영은 저도 처음 해보는지라 좋은 예술감독 선출 방식을 놓고 단원들부터 지역 예술인들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좋은 분을 모셔 달라’고 했고, 심지어 어떤 예술단에서는 “우리가 직접 뽑으면 안 되느냐”는 하소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간 예술감독들에 대한 단원들의 만족도가 낮았던 것을 상징하는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예술감독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들어 보니 ‘비교적 성공적이었다’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중간 정도였다’가 각각 1/3씩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극단 등 성인단체는 추천제로,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공모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한두단체만 공석이었던 그간 해오던 대로 공모제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추천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술단 운영에 관심이 많아 그간 운영방향이냐 단원평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술감독 선임에서 공모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예술계에서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예술계의 관록 있는 분들이 지원을 꺼리므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추천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극단을 제외한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추천위원회(각 6명으로 구성)에서는 ‘세분의 후보를 정하고 각 경선공연을 통해 단체의 방향성과 단원들과의 궁합(?)을 세밀하게 본 다음 선정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후보들 중 한 분을 바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그 방식이 단원들과 시민들께

다양한 색깔의 경험을 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침체된 예술단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시기건 그 시기의 선택은 다 배경과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선임방식은 위와 같은 배경과 요구로 ‘선택’된 것이지요. 물론 다른 시기에는 그 시기의 배경과 논리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요.

시대의 배경과 요구에 따라 선택된 전문가 추천제

정두환 반갑습니다. 방금 이용관 대표가 추천제를 통한 경선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입장에서 먼저 말씀 드리면 저는 -추천위원도 평가위원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추천과 경선을 통한 선임 작업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가 뜨지도 않았는데 아예 띄우지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논란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4개 성인단체의 진용이 갖춰졌으니 선임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안호상 교수님께 이번 경선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호상 우선 이 자리에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무용단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경험이지만 저 역시 국립극장 극장장으로 있으면서 예술감독 선임과정을 진행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 과정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예술감독 선임에는 공모를 해서 선임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듯 추천위원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위원회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기관장이 지명하는 방식도 있는데 방식별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모제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국립극장 시절 공모를 진행해보니 아무리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더라도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경쟁자에 대한 견제에서 생기는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더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모 과정이 알려지다 보니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다고 해서 꼭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공연이라는 것이 극장 전체의 예술적 방향과 결부되다 보니 개별 예술감독의 예술방향이 극장과 맞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뽑았음

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공모제가 갖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회관이 이번에 이것을 절충하여 추천위원회 제도를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극장 대표를 예술경영 전문가로 뽑았다면,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 원칙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복수로 후보를 올려 어느 정도의 검증만 거친다면 전체적인 예술적 진용은 대표의 선택에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천제를 통한 경선 역시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데요, 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듯이 추천제 또한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해보면서 공적 예술기관에서 예술감독 선임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를 예술계가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생각하고 이번 좌담회도 그런 뜻에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윤경 저는 부산의 문화예술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국악 방송에 있다 보니 그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지라 이번에 국악관현악단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경선 직전까지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새로운 예술감독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예술감독은 예술적 경험이 다양하면서도 단원들과 소통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하는데, 그러한 분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몇 차례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예술감독은 관현악단에 대한 경륜이 높은 분을 모셔서 부산시립만의 고유 레퍼토리 개발과 함께 단원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음악적 입장과 위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분리 운영하는 이원체제가 새롭게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혜자 저는 이번에 극단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위원회 결성부터 그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술감독이 선임되고 나서도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 극단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극단 공연으로 한동안 지역 연극계가 시끌시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 연극계에 시립극단이 담론을 생산해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지만 예술감독 당사자나 예술단에서는 안 그래도 파란이 많은 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회의자료에 제시된 전체 일정을 보다 보니 극단뿐 아니라 다른 단체의 일정 또한 급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야기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보탠다면 공모제보다는 오히려 추천제가 낫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예술감독을 추천제로 뽑는다면 예술감독의 대상이 되는 분들, 예술감독직을 염두에 둔 분들은 본인의 작품활동이나 언행에 좀 더 신경을 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예술단에 대한 공연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추천제도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정두환 일정이 급하게 진행된 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4개 단체 수장의 공석이 너무 길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장이 없는 가운데 배는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요구사항이 계속 높아지고, 그 높아지는 수위가 더 이상의 공석은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우리 부산 문화계를 비롯한 지역의 거센 파도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 왔었지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상황 논리와 맞물려 부산문화회관을 향한 공격이 많았구요.

이용관 급하기로 말하면 사실 제가 부산문화회관에 올 때부터 급했어요(웃음). 왜냐하면 대표직뿐 아니라 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공연기획팀장 자리까지 공석이다 보니 당시 신문 1면 톱기사로까지 뜰 정도였어요. 제가 대표이사로 발표나고 딱 4일 만에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 예술감독 역시 대부분 공석인 거예요. 서둘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윤경(국악방송 미디어사업부장, 국악단 후보추천위원)

공연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진행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려다 보니 매번 일정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예 첫 모임에서부터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모이자고 정한 겁니다. 그래도 극단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도 했고 그 후보자가 지역 출신이기도 하여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번 추천을 통한 경선을 진행하면서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왜 그러느냐’, 이 말이 뭐냐면 공모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지역 예술인들은 어찌란 말이나, 서울에서 아는 사람 불러다 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였고, 두 번째는 ‘잘되겠느냐’, 이 말은 그래봤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변에서 ‘누구로 하라’는 압력도 분명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막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시와는 사전에 협의도 했구요. 세 번째는 ‘누가 오겠느냐’였는데, 그것은 지금 그 연봉에 흔쾌히 올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예술감독의 연봉도 전국 중상위권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로 ‘추천제까지는 좋은데 꼭 경연으로 가야 하냐’는 이야기였는데, 해당 예술가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해보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체, 예컨대 무용단이나 극단은 제외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에 전례 없는 관심 집중

이상현 경선이 시작되고 무용계에서는 많은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추천위원회가 아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부산 무용계는 추천에서부터 지역 출신 안무자에 대한 기대가 관철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요구지만, 예술적인 능력보다 출신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도 지역 출신 논란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전례 없는 과정이라 다들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도의 장점이라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시립무용단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경선 시작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에 계속 회자되었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지명제보다 상대적으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결정 과정에 단원들 의견이 큰 작용을 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들이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임 예술감독의 실험성이



이상현(춤 비평가, 무용단 심사위원)

단원들의 상태와 타협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대한 만큼의 실험성이 나오겠느냐는 점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단원의 견이 작용했기 때문에 예술감독이 자기 입장만을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하자면, 이번에 시도한 추천제를 사례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선택한다면 추천제인데, 지금처럼 추천에 이은 경선이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 중에서 지명한다면 지명하는 쪽이나 받는 쪽의 책임감이 더 커질 것 같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도 여러모로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제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신임 예술감독에게 기대한 젊고 실험적인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단원들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입니다. 우리는 되지만 잘해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두환 사실 그게 무용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단, 나아가 예술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가장 순조롭게 마무리된 단체가 합창단인 것 같은데요, 백현주 작곡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백현주 네, 저는 합창단 추천위원으로 참여했고, 제가 이번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선정방식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합창계의 명망있는 분들은 공모 자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추천제는 어찌 보면 좋은 지휘자를 모셔올 수 있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세 명이 되다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연주회까지 마친 한 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비해 선출과정에서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현주(작곡가, 합창단 후보추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보자를 두 분 정도로 해서 단기간에 선출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합창의 경우 아무리 유명한 지휘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리허설 테크닉이 어떠한지, 단원들과의 호흡이 어떨지 등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합창을 오래한 단원들의 경우 리허설 한 번만 해봐도 이 지휘자가 곡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창단 경우에는 지휘자 선정을 위한 음악회든 객원지휘든 합창단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갖되 그 과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천위원 선정이 잘된다면 중간 과정 없이 그냥 지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처음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술감독 선정을 하는데 책임용 시 또 그만큼의 중요도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래서 합창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관 먼저 무용단 수석안무가 선정에서 단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은 심사위원 평가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히 단원들의 의견 비중이 크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의 경우, 단원들의 의견은 ‘참고’ 수준이었죠. 백현주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자면 초임의 경우 임기가 성인 단체는 3년, 청소년 단체는 2년입니다. 그 기간이면 예술감독의 역량이나 혹은 리더십,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좋은 분이라는 판단이 들면 미리 책임용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교향악단의 경우 올해 9월이 되어야 예술감독의 임기인 3년이 끝나지만 1년을 앞두고 지난해 책임용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즌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타 예술단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

이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실력’ 위주의 선택을 하기 위해 추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을 배제했다는 언론도 있었지만, 공모로 했을 경우 지원했을 분들도 모두 추천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도 불만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창단이 가장 순조롭게 끝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형식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경연에 참여하셨는데, 공연 주제를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사실 추천위원회에서 주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부산이라는 주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지역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시다. 물론 무용단도, 국악관현악단도 그랬지만 합창단이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 경선 중간에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무용단 후보자 중 한 분이 경선 직전 경기도립무용단으로 빠지고 또 합창단 한 분은 공연까지 마치고도 광주시립합창단으로 가셨는데, 이게 또 추천위원회의 선정이 잘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는 말이 당시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벌려 놓은 관에서 현재의 확실한 기회와 미래의 불확실한 기회 사이에서 후보 중 어떤 분이 현재의 확실한 기회를 선택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정두환 이번에는 경선을 총괄했던 예술단 사무국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무국에서도 이런 방식의 경선이 처음이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사실 행정의 뒷받침이 없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정 사무국장님이 보는 이번 경선은 어떤가요?

김현정 저희 사무국이야 어쨌든 정해진 방향과 원칙에 맞춰 진행을 했고요, 앞서도 다른 분들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번 경선과정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리더십 교체 방식은 바로 문제해결의 과정

정두환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이용관 대표가 책임용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예술감독을 선출한 후 다시 책임용 등을 하기에는 대표의 임기상 그 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

시 말해 책임자의 책임성 발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건데요, 대표이사와 예술감독 간의 재임 기간이 엇갈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세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 첫째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명하는 것과 공모,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엮어 진행하는 것 중 제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련되었다는게 큰 성과이구요, 다음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책임자인 대표와 예술감독 간의 재직 기간의 문제, 마지막으로 지역이라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안호상 교수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사실은 서울은 단체가 너무 많아 제 생각에는 추천을 하든 지명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 보는데요, 서울과 부산을 두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가요?

안호상 서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천제가 공모제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리더십을 교체한다는 것은 대표를 바꾸는 거잖아요. 리더십을 바꾸는 이유가 바뀌어서 얻고자 하는 어떤 효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결국 현재 내부에 있는 문제나 어떤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취해야 되고, 그러려면 변화의 방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지역예술가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천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후보를 선택해야 하고, 만약 지금 문제해결의 핵심이 관객이다 하면 관객, 레퍼토리다 하면 레퍼토리에 초점을 맞추



안호상(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 무용단 후보추천위원)

는 등 이런 리더십 교체를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모제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더군요. 제가 지금 이 단체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제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를 뽑아 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가 가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추천위원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공론화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출하는 게 그래도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어디에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술의전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예술의전당에서 초창기 공연을 진행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국내 예술가를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떤 기회가 올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해를 시켜나갔죠. 물론 궁극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수가 거기에 대해 이런 절차, 방식대로 합의를 해나가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두환 예술이란 게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데 독창성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뽑아내는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 과정인데, 저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왜 내가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백현주 저는 제가 왜 들어갔는지 알고 싶은데요.(웃음)

안호상 들어가면 후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아닌가요?(웃음)

정두환 ‘왜 내가 안 들어가?’ 하는 사람, 그리고 ‘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사람, 저는 처음에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당황했는데 조금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나 하면 ‘내가 왜 안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면밀히 보면 ‘내가 난데’라고 나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서는 사람은 나설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 거죠. 근데 또 ‘내가 왜 들어갔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게, 이번 추천을 통한 경연 형식을 뭐 이 방

식이 시장성은 있었다, 이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관심을 모으는 데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일례로 시립합창단 누구를 뽑는다 했을 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합창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으니... 본의 아니게 추천제와 경연제를 결합함으로써 예술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섬세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막상 공연장에 와도 1부 휴식이 끝나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장르 불문하고 공연을 다 보는데 이번엔 극단도, 합창단도, 국악관현악단도 관객들이 끝까지 대부분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 '아, 관객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게 어찌 보면 성과라면 큰 성과겠죠.

이용관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방식을 취한 가장 큰 동기였기도 하고요. 신문에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게 한 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덕분에 저도 멧집이 늘었다고 할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술계도 이런 방식에 대한 낯설음이 많이 해소된, 말하자면 심리적 멧집이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관심을 받은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한테는 또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모든 추천위원들과 평가위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이 장르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깊더라구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통해 그 깊은 애정을 표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생각했죠, 시립예술단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이 장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눈이거든요. 지역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술단이 책임감

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겠구나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또 지원 역할을 잘해야겠죠.

이윤경 저는 추천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사실 지휘자 경선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인선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지휘자 경선이라고 하는 어려운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들께서 적절한 분을 선정해주셨고, 여기에 단원들의 의사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 서로 간에 책임감과 비전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악관현악단은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구분되는 이원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는 기관장께서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감독의 역할이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일원화시켜 지휘자가 안정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예술감독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두환 예술감독제 역시 부산에서 처음 시도한 실험적인 제도이죠.

김현정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최초, 실험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 대한민국 최초로 하네요', '아 이거 잘해야겠네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평가위원들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예술감독-지휘자 이원화 체제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단원들과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주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제는 그럼 그때 추천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용관 서양음악의 경우 워낙 레퍼토리가 많으니까 교향악단이 어떤 레퍼토리를 해도 단체마다 그 색깔이 드러나는 데, 국악관현악단의 경우, 레퍼토리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도 결국 모든 단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맞는 레퍼토리 개발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예술감독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추천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 예술감독의 권위로 단체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필요하



김현정(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장)

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단원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겠다, 추천위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겠다' 했는데 추천위가 다시 적극 권고를 해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단원들이 동의했어요. 실질적으로 김정수 예술감독은 부임 초기 단체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레퍼토리 개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환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부산에서 새로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경우에도 하나는 추천제와 경연제를 결합한 예술감독 선출, 또 하나는 예술감독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악뿐 아니라 서양음악에서도 예술감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지휘자 한 명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객원지휘자를 쓴다 하더라도 그라인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제가 있어서 상임지휘자 외에도 객원지휘자가 여러 명 있거든요. 객원지휘자 안에 수석 객원지휘자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어찌되었던 이번엔 새로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혜자 저는 궁금한 것이 추천제든 공모제든 둘 다 추천위원들이나 공모를 하는 수용자만 생각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선정자, 추천 후보자들을 중심에 두고 재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차이점으로 공모제의 경우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공약이나 비전을 세우고,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적합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시립예술단의 문제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후보자가 수락할 수도,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게다가 제시한 비전이 맞지 않을 수도,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비포앤애프터'라고 봐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비전이 있는데, 추천제로 했을 때는 단체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내용들을 재단, 혹은 사무국에서 받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술감독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이 단체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지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제시한 솔루션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메니페스토가 되는 거죠. 예술감독이 내건 공약과 작품의 성취도를 비롯한 약속들이 잘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추천위원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 부분을 짚어봐야 추천제

가 좋은지 아님 공모제가 좋은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두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7개 단체 중 이번에 4개 단체를 추천제로 했는데, 4개 단체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달라요. 그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단체가 극단과 합창단이거든요. 사실 합창단은 공석이 워낙 장기화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목소리인데, 문제는 극단이라고 봅니다. 극단은 창단한 지 불과 2년 만에 문제가 불거졌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의 문제 역시 그때부터 축적되어왔던 문제라고 보여줍니다. 극단에 쌓여있던 문제들, 그리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 이것들은 공모제를 통하든 추천제를 통하든 같은 문제를 안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풀어가길 방법을 누가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당사자인 극단만이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추천제 약점은 차후 세밀한 수정 보완 필요

주혜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선임 당시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극단의 경우, 아마 단원들의 의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드러나면서 어떤 사람은 A후보, 어떤 사람은 B후보 나뉘져 팀 내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서로가 정치하듯이 예술감독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오히려 극단의 현황으로 수면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이 극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극단 내부뿐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감독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작품으로든 시스템으로든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조직내의 문제를 모르는 추천위원들이 앉아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공모제보다는 추천제가 낫다고 밝혔지만 '뭐가 옳다 그르다'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슈화를 발판으로 오히려 추천제의 빈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두환 그 접점이 제 생각에는 예술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술집단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예술성과를 낸다면 개인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가장 큰 가치는 좋은 예술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리더가 정말 좋은 연출을 하면 패인 골도 매꿔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정

정해지고 두 개의 균형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어떤 단체든 자기들이 추구하는 예술들이 탁월하면 나머지 부분은 묻혀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추천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천위원회에 이름이 들어갔던 분들, 한 번이라도 거론됐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책임감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용관 저도 주혜자 연출님의 말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후보자 두 분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지 의견을 받았어요. 그것도 참고로 했는데, 다른 단체까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천위원들에게는 단체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연을 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예술단과는 이런 부분이 안 맞네, 이러면서 한 번 걸러지는 거죠. 예술단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야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기도 했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장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혜자 극단의 경우 앞서 전임 예술감독님이 단원들이 지켜야 할 규약이라든지 매우 강력한 공약을 단원들에게 걸었어요. 그래서인지 당시 극단 내부의 반발도 꽤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술감독님이 오시고는 그런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감독님이 예전에도 극단과 함께 작업을 하셨고 내부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약이 없어도 작품으로, 기획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상 저도 이번에 처음 추천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모제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 싶었고 또 이왕 과감하게 시도를 하였으니 실효성 있는 추천위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만 회관 측에서 최대한 결정에 거리를 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이번에 무용단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부산시립무용단과 특히 한국무용에 전반적인 이슈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의 한국 무용계의 리더십이 너무 오래 지속

되었고 그게 결국 무용계와 관객 간의 괴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면 이번 기회가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젊은 안무가가 되긴 했지만,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추천위원회뿐만 아니라 극장과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감독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교체하는 일이 가장 드라마틱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무용단이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놓고, 부산 무용계와 한국 무용계에 좀 더 과감하게 젊고 신선한 무용감독을 제안해서 던져놓고, 세계다투거나 논쟁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추천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후보 이름이 먼저 거론되기보다 무용단의 그간 활동에 대한 비전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추천위원회 심의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회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의 운영의 성과들을 분석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주혜자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두환 추천위원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결정



주혜자(연극 연출가, 극단 후보추천위원)

되고 나면 추천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해져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누구나면 추천위원들이란 말이예요. 추천위원들을 분기별로든, 아니면 공연 끝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추천위원들을 다시 모아서 한 번 더 재토론하고, 성과물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재점검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선임된 사람들도 ‘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하는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예술의 초대>에 추천위원분들이 감상평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공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선정된 이슈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분들도 끊임없이 발전해나갈거죠.

주혜자 일종의 책임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천위원 책임제.

이용관 예술감독이 선임되고 국악관현악단에서 레퍼토리 개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추천위원 일부도 들어가 있지만 추천위원회하고는 다르죠.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런 형식도 활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신임 예술감독님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정두환 그렇죠. 앞으로 추천위원이랑 각 단의 예술감독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리를 통해 또 변화되는 가능성이 찾아지겠죠. 그리고 그 변화를 견인하는 힘은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원들, 좋은직장이 아니라 공적 임무 감당해야

백현주 어떤 분을 예술감독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단원들하고 잘 지내는데 레퍼토리와 예술성이 빈약할 수도 있고, 연주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과 마찰이 많을 수도 있는 등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철학이 있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중요한 것을 좀 더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다른 합창단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적인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립예술단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시립합창단에게 있어 급한 것은 일단 수준 높은 합창인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단원들에게 합창단은 그저 좋은 직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립합창단, 더 나아가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부산의 다른 많은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새로 선임되신 감독님도 그렇고 단원들도 ‘내가 명색이 시립합창단인데...’하는 그런 식의 자존심, 예술가의 자존심을 가지고 합창단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관 경연방식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가리는데 아니라 그래도 좋은 분들을 추천해주셨으니 단원들이나 관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면서 예술감독과 예술단이 서로의 궁합을 맞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감독이 선임됐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술감독의 몫이겠죠. 지금으로서는 예술감독이 자기의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시도립 예술단 평균 공연예산이 전체 예산의 24%인데 반해 우리 예술단은 12%입니다. 절대 액수로도 많이 적죠. 그래도 올해 힘든 가운데서도 예술감독과 비상임 단원의 대우를 개선했다는 것도 나름 성과라 생각하구요, 앞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연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산 증액도 힘들 것 같고 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안호상 제가 극장장으로 있으면서 예술 행정가로 제일 어려웠던 게 예술단체 운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예술단체 운영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예산이 없고 좋은 예술감독이 없어서 문제라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원들의 기량과 형식적 근무형태가 문제라고 해요. 어찌됐든 단체운영의 주체가 단원들인 만큼 그분들이 내부에서 자각하고 움직이는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그러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붓고 기회를 만들고 좋은 예술감독을 붙인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예술감독을 뽑는 논의의 치열함이 단원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의 진정성을 직접 보고 공감하는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전달되어 이 결과에 대해 같이 책임을 느끼고 서로 반론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도시의 시장님이 만나자 해서 갔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민간 예술가들이 자기들 예산은 이만큼인데, 시립 단원들은 뭐한다고 저 돈을 주고 아무 일 없이 놀리느냐, 그런데 시장님은 예술단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지역 예술계로부터 큰 압력을 느낀다고 해요. 우선 지역 예술계를 이해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 있는 예술감독을 뽑으시라고,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죠, 제가 국립극장에 있을 때, △△시장도 저를 보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은 쓰는 돈이 비슷해요. 인건비 100억 원에 사업비 10억 원이예요. 10억 원 정도 써서 5~6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단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단원들이 오전 늦게 나와서 오후 일찍 들어간다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립극장에 가보니까 사실 단원들이 출근해서 머물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공연이 없을 때는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단원들이 있을 곳도, 붙잡아 둘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지금 국공립단체의 현실인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산 중 한 70%가 공공기관과 단체 운영에 들어가고 있어요. 단체 운영이 관객과 예술계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걸돌면 예산의 많은 부분이 그냥 흘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단원들도 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헌 사실 밖에서는 부산문화재단에서 5백만 원, 1천만 원 지원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 예산으로 허덕이며 일 년에 한 번 공연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는데, 공공예술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두환 사실 이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심각성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칼럼 소재를 위해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경우 한 곳의 대학에서만 호른 전공 학생이 32명이에요.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 소재 대학의 호른 전공자가 모두 합쳐 13명이에요. 그러니까 호른 전공 학생이 없는 대학도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사회가 소확행으로 가고 있지만 예술계는, 특히 공공예술계는 거대담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변화의 물꼬를 텃으니 제가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담론의 형성을 예술단, 예술감독들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간다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걸어봅니다.

주혜자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예술을 직장업무로 소화하는 극단 단원의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단체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립극단은 현재 시준제 단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야기를 모 단원에게 꺼냈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핀잔 섞인 소리도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또 현실이니까요. 부산의 지역성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역성을 브랜드로 해석한다면, 브랜드가 될 만한 시립극단의 배우, 예술감독 후보가 없거나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극단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매체를 통해 그 파워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연출이나 스태프 중에도 관객의 성원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브랜드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반해 부산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죠. 게다가 외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야 시립극단이 부산 연극계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들 거 같은데, 현실은 극단활동에 쫄쫄 묶여서 더욱 활발하게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교수들처럼 안식년이 있어서 극단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다시 극단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정두환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술단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예술단 단원이면서 예술단 활동보다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공 예술단 단원으로서 일정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과 동시대성 사이의 예술적 스펙트럼 변화도 중요

이용관 이번 예술감독 선임 결과를 보면 일단 총체적인 진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잘 갖추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렇



이용관(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게 말하는 전문가도 계시구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과거에 더 좋은 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좋은 분들을 모셨다는 것이죠. 다음엔 이 분들이 예술단의 부정적인 면모를 바꿔나가길 기대합니다. 대표도 사무국도 행정적 뒷받침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경쟁력이라 하면 예술단의 총체적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과 사무국의 기능을 관객 개발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상 교수님이 국립극장으로 계시실 때 잘하신 것 중 하나가 예술단의 방향성을 ‘컨템포러리(동시대성)’로 정한 후 끌고 가신 거라 생각되는데, 물론 단체가 3개뿐이었고 국립이라는 환경과 당위성이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 레퍼토리 축적도 많이 하고 예술적 흐름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부산시립예술단은 어떨까, 예술적 스펙트럼이 왼쪽(전통)일까 오른쪽(동시대성)일까, 지역에만 갇혀 있는가, 외부와의 교감이나 소통이 있는가를 짚어 본다면 대부분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고, 그럴 경우 관객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단체의 성격상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예술감독 선임은, 특히 무용단은 그 중간 어디쯤에 예술단을 포지셔닝한 걸로 즉, 일단 상당부분 오른쪽으로 가기는 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현 부산의 한국무용은 전통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무용 창작은 작품 찾기가 힘듭니다. 현대무용과 다르게 한국무용은 전통이라는 회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은 공연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나마 창작 작품이 나오는 편인데, 부산은 일 년 동안 무대에 오르는 한국무용 대부분이 전통입니다. 그것도 부산 지역 전통·민속춤과 살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에 치우칩니다. 제가 전통무용을 선뜻 보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사람이 같은 춤을 여기저기서 추고, 그것도 매년 반복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호상 그러니까요. 국립무용단도 보면 전통무용을 하는 곳이라 생각해요. 그러려면 민속무용단에 가야지 왜 창작하는 국립무용단에 왔냐고 하고, 국립무용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이 시대의 창작을 하는 곳이니깐 옛날 전통무용을 하려면 다른 곳을 가야 한다고 해도 그 차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꿈이 국가주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이수자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상현 부산에서도 동래야류, 수영야류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보존회에 들어가기 위해 단원뿐 아니라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줄지어 서있다고 하네요.

백현주 합창도 제가 레퍼토리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적어도 시립예술단인데 민간 합창단보다는 다양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레퍼토리들을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합창단이 뭔지에 대해 예술감독도 고민해야 하지만 단원들 역시 자기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사족인데,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왜 시립합창단 반주만 하면 성의없어 보이는 연주를 하는지 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에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건지 어떤 공연을 해도 자기반성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비평가의 부재가 문제인지 아님 발표할 수 있는 언론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평문화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혜자 사실 극단에서는 무엇보다 예술적 동기를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는 예술감독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납게 얘기해서 예술적 동기가 월급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감독이어야 하겠지요. 단원들과 맞닿아가는 과정에서 작품성, 인성, 리더십, 행정력을 발휘해야하고, 어렵겠지만 이 모든 조건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명작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예술단의 필요성과 예술감독의 자격은 제도에 대한 이러한 기준 아래 자연스럽게 증명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술단의 얼굴이 되든 누가 되든, 월급이 아닌 예술단의 예술적 성취도를 두고 존경하고 동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감독 선임이 중요하고, 이번 추천제가 그 첫 포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두환 예술감독 추천을 통한 경선제가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모든 경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만큼 모두들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봅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배준익·홍보팀>

이웃과
함께 읽고
보고
즐기다

비온후 책방

망미골목길

박나무 자유기고가

소식적에 책 좀 읽었다면 장래희망으로 작가 혹은 책방 주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능력도 딸리거니와 그 직업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찮음을 깨닫고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책방 고객으로 자리 잡는 게 보통의 삶이지. 아, 어쩌면 책방 고객의 자리마저 내어주고 생활고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책방이라는 데가 입장했다고 꼭 책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앉거나 서서 주력상품인 책을 야금 야금 읽는다 해도 눈치 주지 않는 독특한 습속을 가진 곳이니, 고객의 자리라도 지키며 살아보는 게 좋겠다.

망미골목길에 자리 잡은 '비온후'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책방이다. 건축 사진작가 이인미와 출판편집자 김철진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비온후'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꾸려온 지가 올해로 꼭 20년째. 그리고 망미동으로 터전을 옮겨 작은 책방 비온후를 연 지 2년째. 작가이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책방 주인이기도 하니, 문학청년이 그려봄 직한 직종 3관왕을 다 이룬 셈이다. 주로 건축과 관련한 책을 출판하였으니 비온후에는 그 책들이 전시·판매되





책방 한편에 자리한 전시공간 '보다'

고 있고, 여행과 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많이 두고 있다. 작은 책방은 보통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편이라, 독자가 원하는 분야라면 큰 서점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책을 고를 때 적절한 조언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비온후 책방은 책을 파는 것으로 할 일을 제한해놓고 있지는 않다. 서점이 문을 닫은 저녁에 함께 모여 느낌을 나누는 심야책방을 운영하며, 좋은 영화를 함께 보는 망미골목책방영화제도 열고 있다. 아침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고 일터로 흩어지는 아침책상을 위해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한다. 영화와 인문학이 만나는 워크숍을 열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개인의 체험과 취향을 함께 나누는 공유살롱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읽었던 책을 주변과 함께 나누는 본책나눔도 얼마전 일이다. 8월 말에는 포토다큐작가 살가도의 <제네시스>를 읽고 느낌을 나누거나, 대니 분 감독의 <알로, 슈티>와 피터 위어 감독의 <죽은 시인의 사회>를 함께 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바뀌는 바람에 9월로 미루어졌다. SNS를 통해서 일정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늘 잘 살피는 것이 좋겠는데, 책방 공간이 넓지 않은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힘들다.

“출판사는 작가와 만나는 곳이고 서점은 독자와 만나는 곳인데, 그것을 한데 모아놓으니 참 좋아요. 우리에게 이 공간이 참 잘 맞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편안하게 닮아 있었다. 서점은 '전시공간 보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연말까지

는 전시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요” 8월에는 박성옥 작가의 '미묘하여美猫夏女'라는 전시가 열렸는데, 동양화 물감으로 표현한 섬세한 작품들이 독자들과 함께 했다. 9월 4일부터는 이선경 작가의 개인전 '클래식'이 기다리고 있다. 책방은 독특하게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하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만 문을 연다. 따라서 전시공간이 열려있는 시간도 그리하니 꼭 기억해야겠다.

무섭게도 비가 많이 온 여름을 지나고 있다. 세상은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데, 빗물은 하천을 범람하여 집 안을 넘나들고, 급기야는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잊었거나 혹은 외면한 채 허깨비만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비가 한참 내릴 때는 그것이 그치기를 조용히 기다려야겠지만... 비온 후에는 젖은 것들을 내다 말리고, 내리쬐는 햇볕에 감사하며, 다시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이웃과 함께 여기저기 손을 보아야 할 일이다.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 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작은 곳에 적은 인원들이 함께 비온 후를 도모하는 게 새로운 살아나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문의 : 비온후책(645-4115, [instagram.com/beonwhobookshop](https://www.instagram.com/beonwhobookshop))

망미골목길에 자리잡은 '비온후'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작은 책방이다.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화가가 그린 비너스

화가에게는 자신만의 비너스가 있다!

하나영 예술학박사



그림 1] 르누아르, <부지벌의 무도회>, 1883년, 캔버스에 유채, 98×182cm, 보스톤 미술관 소장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연예인들에게 TV 속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상형(理想型)이란 실제 만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왔던 이상적인 모습을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그렇기에 이상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좋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화가의 경우는 어떨까. 보고 느낀 것을 그릴 수 있으니 자신의 이상형을 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화가가 그린 비너스의 모습

보티첼리의 우아한 비너스, 루벤스가 그린 풍만한 헬레나, 아르테미지아가 표현한 진취적인 여성 등 화가들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비너스’가 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화가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상형을 그림 속에 담았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상형이 있고,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하는 것처럼 말이다. 화가들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을 때 영감을 얻고, 그를 모델 삼아 자신만의 비너스를 화폭에 그렸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그려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잔 발라동(Suzzan Valadon)을 그린 세 화가의 그림이 있다. 부드러운 색조와 터치로 여인을 사랑스럽게 그리던 르누아르(Auguste Renoir)는 수잔을 하얀 피부의 뺨에 붉은 홍조가 피어난 여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 그림 속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즐겁게 무도회를 즐기고 있다. 고단한 세상의 그들은 한 점도 보이지 않고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실제로 힘들었던 수잔의 삶을 누구보다 이해했던 툴루즈-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압생트를 잔잔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그림 2).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나 바닥의 삶을 표현했던 툴루즈-로트렉 특유의 마른 붓질로, 머리를 질끈 묶고 소박한 옷을 입고 멍하니 턱을 괴고 있는 수잔이 그려졌다. 이 그림 속 여인은 고단한 삶에서 술에 의지해 잠시 쉬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듯 르누아르는 수잔을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툴루즈-로트렉은 세상의 고단함을 짚어낸 여인으로 그렸다. 하지만 화가이기도 했던 수잔은 스스로의 모습을 강한 인상의 여성으로 표현한다(그림 3). 짙은 눈썹을 가지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수잔은 눈을 내리깔고



[그림 2] 톨르즈-로트레, <숙취>, 1889년, 캔버스에 유채, 47X55.3cm, 캠브리지 포그 박물관 소장

입을 삐죽이며 세상을 향해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렇듯 세 화가가 그린 수잔은 실제로는 한 사람임에도 그림 속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가들마다 다른 개성적인 표현방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이 같지 않음을 드러낸다. 요즘은 일상화된 사진 촬영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셀카로 자신을 찍을 때와 친구가 찍어준 모습, 혹은 모르는 사람이 찍어줄 때의 나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 지금처럼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없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손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비너스를 그린 화가 이야기

부산문화회관에서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화가가 그린 비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들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미술사의 핫이슈'를 다루었던 지난 분기에 이어, '화가가 그린 비너스'라는 주제로 화가가 자신의 이상형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념과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강사가 집필했던 <그림이 된 여인>(은행나무)을 기초로 하고, 더하여 더 많은 이야기와 현대작가까지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대별로 여성상이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에도 보티첼리는 우아한 성모를 그렸다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부드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미켈란젤로는 강인한 여전사 모습의 여성을 그렸다. 하지만 당시에 화가들이 비너스의 모습을 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고갱은 자신이 그린 타히티의 여인들의 피부가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난다고 생각하여 표현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색으로 비판받았다. 그리고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는 '하얀 코끼리'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화가들은 자신이 생각한 비너스를 그리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도 화가들마다 달랐다. 로코코의 대표화가 프라고나르는 사랑에 빠진 비너스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클림트는 여결인 유디트를 금빛 찬란한 화면에 담았다. 그리고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는 사회적 부조리를 강렬한 여성의 모습으로 항의했으며, 비제 르 브링은 자신이 생각한 멋진 패션 스타일을 당시 최고의 샐럽인 마리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그리고 예술로 자신의 고통을 승화했던 프리다 칼로나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을 최초의 누드 자화상으로 표현한 모더존 베커는 자화상을 통해 자아상을 만들었다. 특히 타자로서의 모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모델로 삼아 그린 여성 화가들은 작품을 통해 세상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화가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분기에서는 세 번의 시간을 걸쳐 여성 화가들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렇듯 화가들은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자신만의 비너스를 표현하였다. 이들의 작품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화가들의 생각을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에서 들여다볼 것이다.

화가의 생각 추측해보기

그림은 말과 글만큼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그림을 통해 화가의 생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번 강좌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세계관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그래서 화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 속 비너스가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아보고, 반대로 비너스를 통해 이를 그린 화가가 세상에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볼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림 속 이미지가 그저 아름다운 색이나 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화가의 모습이 담긴 또 하나 자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이의 삶과 생각을 엿보듯 그림을 통해 화가의 생각을 추측해보고, 내가 화가면 어떤 모습의 비너스를 그릴지 상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림 3] 수잔 발라동, <자화상>, 1898년, 캔버스에 유채, 40X26.7cm, 휴스턴 미술관 소장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시민뜨락축제



- **매년 봄과 가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재)부산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야외축제 '2020 시민뜨락축제'가 9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다섯 차례 개최된다.**

지난 2017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 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들에게 예술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힘내라, 부산!'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통해 출연단체를 선정했으며,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재즈와 포크음악 등 대중적인 장르로 시민들과 만난다.

9월 18일, 하반기 축제의 시작은 (사)문화심터 노신사밴드와 연관호 퀸텟의 무대로 마련된다. 60대 후반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프로 뮤지션으로 구성된 (사)문화심터 노신사밴드는 매주 일요일마다 광복동 버스킹을 통해 13년째 부산시민을 위한 공연을 가져오고 있으며, 연관호 퀸텟은 그동안 스탠드 재즈를 기반으로 정통성을 고집하는 재즈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9월 25일에는 맑고 따뜻한 감성으로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

이터 이지아, 아카펠라그룹 비타민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예술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카펠라그룹 비타민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그들만의 자작곡으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10월 16일에는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프로젝트 팀 '판프로젝트'와 락밴드 'WINDA(윈다)'의 무대가 선보인다. 김다솜, 정동렬 등 두 소리꾼과 작곡가 이희진으로 구성된 판프로젝트는 동시대의 감성과 형식으로 재해석한 전통판소리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WINDA(윈다)'는 팝, 락, 어쿠스틱 등 여러 장르를 오가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노래로 들려주고 있다. 23일에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국악 퓨전 프로젝트 팀 '뜨락'과 영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컬 팀 '다ONE'이 무대에 선다. 뜨거운 열정의 '뜨', 풍류의 '락', '뜨락'은 전통과 컨템포러리에 대한 크로스오버를 통해 '옛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다ONE'은 2014년 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창단된 후 뮤지컬 공연에 대한 열정 하나로 관객과 만나왔다. 2020년 시민뜨락축제 마지막 무대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하지림 재즈밴드와 부산시립합창단이 장식한다. 귀에 익숙한 음악으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일 시** 9월 18일(금)-10월 30일(금) 매주 금요일 낮 12:20(10월 2일, 9일 공연 없음)
-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최석태의 부산칸타타 및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지휘 이기선

작곡 최석태

시인 고은하

- 서양과 동양의 현대 합창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가 9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김 안드레 아르네센, 에릭스 에센발드, 올라 야일로의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운 현대합창곡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 최석태의 부산칸타타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부 첫 곡으로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 중 한 명인 김 안드레 아르네센(Kim Andre Arnesen)의 ‘Flight Song’과 ‘Even When he is Silent’가 연주된다. 특히 ‘Even When he is Silent’은 지난 2011년 노르웨이 트론하임에서 열리는 ‘올라 프 페스티벌(Olav Festival)’의 의뢰를 받아 작곡된 여성합창곡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합창세계심포지엄에서 니다로스 성당(Nidaros Cathedral)의 소녀들이 노래한 곡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듬해인 2012년 발표된 혼합 합창 버전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라트비아 그레이트 뮤직 어워드에서 3차례나 수상한 라트비아 출신의 젊은 작곡가 에릭스

에센발드(Ēriks Ešēvalds)의 ‘Stars’와 ‘Rivers of Light’가 연주된다. 에센발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라트비아 주립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곡 ‘Stars’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빛의 아름다움을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곡으로, 물이 담긴 유리잔을 이용하여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워터글래스를 활용한 몽환적인 밤하늘 분위기가 특징인 곡이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노르웨이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젊은 작곡가인 올라 야일로(Ola Gjeilo)의 ‘Dark Night of the Soul’이 연주된다. 미국에서 작곡 공부를 하여 필립 글래스를 비롯한 미국의 현대음악과 재즈, 영화음악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올라 야일로는 주로 합창음악과 피아노음악 작곡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2부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 사랑을 노래로 확인할 수 있는 부산칸타타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 이야기’는 부산을 노래하는 시인 고은하가 문텐로드, 오륙도, 광안대교 등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7곳을 선정, 스토리텔링한 내용에 작곡가 최석태가 곡을 붙인 곡으로,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부산으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다.

- 일 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여행자 '십이야'



- 세계인이 사랑하는 셰익스피어 희극과 한국 전통 마당놀이가 만난 특별한 무대 '십이야'가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을 찾는다.

'십이야'는 그동안 해외 고전을 한국의 미학, 전통과 접목시켜 새로운 해석과 이미지의 무대를 선보여 온 극단 여행자가 지난 2011년 창작한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십이야(十二夜)'를 한국적 미학과 마당놀이 형태로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다. 셰익스피어 원작의 즐거리를 차용하지만 유쾌한 해학과 유희를 살리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과 정서가 돋보이도록 재창작, 관객의 관심과 호평이 이어지면서 극단 여행자의 대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일까지를 뜻하는 '십이야'는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쌍둥이 남매를 둘러싼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로, 셰익스피어의 원숙한 기교와 깊은 인간적 통찰력, 문학적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완벽한 희극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해외 고전의 한국화에 능한 양정음이 연출한 이번 극단 여행자의 '십이야'는 특히 출연진을 모두 남자배우들로만 구성, 마치 사당패의 놀음을 연상

하게 한다. 신체의 움직임과 무대 이미지의 미학이 더욱 돋보이는 '극단 여행자'만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남자 배우들의 등장으로 보다 역동성 있고 흥에 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밖에 사랑, 꽃의 아름다움에 착안하여 작품 속 등장인물을 모두 우리 꽃 이름에서 가져와 쌍둥이 남매의 이름을 '청가시', '홍가시'라 붙이는 등 극중 캐릭터의 성격, 국어와 영어의 어감을 고려하여 붙인 이름이 관객의 또다른 재미를 더해준다.

언제나 새로운 탐험을 향해, 모험을 감행하는 극단 여행자는 지난 1997년 결성된 후 '한여름 밤의 꿈'을 비롯하여 '緣 KARMA', '환', '미살' 등 신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동양적인 정서의 음악, 의상, 무대미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여 왔다. 해외에서도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2003년 제15회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緣 KARMA)에 이어 2006년 제10회 폴란드 그단스크 국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대상 및 관객상(한여름 밤의 꿈)을 수상하고 그해 한국 최초로 영국 바비칸 센터에 초청받아 한국 연극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 일 시 9월 26일-27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Issue
+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춤,
바다 위 푸른 몸짓



연극,
경계를 허물다

B U S A N I N T E R N A T I O N A L D A N C E F E S T I V A L

9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지역문화예술계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다. 9월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매년 해양수도 부산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수놓는 부산국제무용제, 세계 각국의 화제작, 문제작을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연극제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무대로, 문화예술이 주는 감동과 힐링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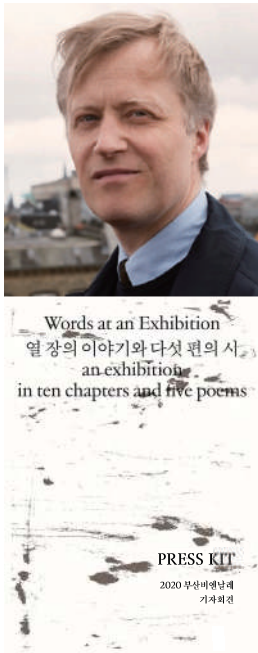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2020 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9. 5(토)~11. 8(일)

부산현대미술관, 중앙동 일원, 영도 참고



전시감독 야콥 파브리시우스(위)
부산비엔날레 포스터(아래)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20 부산 비엔날레가 9월 5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석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출범 20년째를 맞는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부산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987년 시작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 첫발을 내딛은 부산야외조각대전을 통합,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로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2년부터 부산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격년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202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지난해 선임된 전시감독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덴마크)가 선정한 국내외 문필가 11명이 각각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을 기반으로, 시각예술가들의 창작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가 친구였던 건축예술가 빅토르 하르트만의 전시회를 관람한 후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의 곡 구성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무소르그스키가 그림을 음악으로 해석했다면 이번 2020 부산비엔날레는 문학에서 시각예술 등 다양한 방식과 장르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0명의 소설가들이 탄생시킨 '열 장의 이야기(소설)'와 1명의 시인이 창작한 '다섯 편의 시'는 2020 부산비엔날레의 핵심 코드이자 시작으로, 그들이 집필한 문학작품은 국·영·본 전집으로 전시 개막에 앞서 출간될 예정이다.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30여 개국 80여 명의 예

술가들이 참여한다. 전시의 중요한 키(Key)가 되는 문필가들은 한국, 미국, 덴마크, 콜롬비아 등에서 11명이 참여했으며, 시각예술가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굵직한 작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부산이 전시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만큼 지난 비엔날레에 비해 신작의 비중과 부산 출신의 참여 작가도 늘었다.

국내 작가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실을 화두로 사회비판적 경향의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원희 작가를 비롯하여 수목감성으로 현대 도시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작가 배지민이 참여하며, 여러 매체가 혼재된 시대에서 리얼리즘과 정체성에 관한 영상, 설치 작업을 하는 부산 태생의 송민정 작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작가들로는 영상, 사운드, 언어 프로그래밍, 텍스트 등 복합적 매체를 사용해 정체성, 갈등, 감시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아지즈 하자라와 고무, 소금, 안료와 같은 자연 재료들과 플라스틱, 전기케이블 등의 인공 재료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본질적 속성과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탐구하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 비앙카 봉디가 참여한다.



문의 (사)부산비엔날레
051-503-6111
www.busanbiennale.org

벨기에 2인조 작가인 요스 드 그뤼터 & 해럴드 타이스는 2019년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벨기에관에서 조명을 받은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는 사운드, 텍스트, 흔적, 기억으로 이루어진 영상과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모니카 본비치니는 1999년 하랄드 제만이 감독했던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가이며, 덴마크의 라세 크로그 뮐레르는 일상에서 통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대상

에 주목하여 기존 전시 체계에서 드러나기 힘든 위계질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작가이다.

새로운 20년의 첫 번째 전시가 될 2020 부산비엔날레는 관객으로 하여금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시의 역사와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2020년 제16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 위 푸른 몸짓

9. 11[㉮] ~ 9. 12[㉯]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등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16회 부산국제무용제는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꾼 부산국제무용제는 특히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경연부문인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를 개최해오면서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 육성해오

고 있다. 지난 6월 8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렸던 올해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 결선 무대에서는 경희댄스시어터 박재현이 최우수상을, 현대무용단 자유 박근태, C2댄스컴퍼니 라세영, 조군댄스 조현배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춤, 바다 위 푸른 몸짓'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초청팀의 불참으로 국내 우수 무용단 17개 팀이 참가한다. 첫째날인 9월 11일은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미의식을 창출하는 '강미리 할 무용단'의 개막 축하공연 '동해랩소디'를 시작으로 해외

문의 (사)부산국제무용제
051-868-7881~2
www.bidf.kr



강미리 할 무용단 '동해랩소디'



무사이 댄스컴퍼니 '노인과 바다'



아트프로젝트보라 소무



LDP무용단 'Look Look'



김용걸 댄스시어터 산책



장유경무용단 '길을 묻다'

에서 활동 중인 안무가 김영진이 창단한 'System on Public Eye', 그리스, 미국, 프랑스, 세네갈, 나이지리아, 스웨덴,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적의 무용수들로 이루어진 '서울댄스컴퍼니.쿨차', 대중 예술과 순수예술의 융합으로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는 '무사이 Dance company', 현재 국내 무용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안무가로 급부상한 김보라가 이끄는 '아트프로젝트보라', 오산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있으며 예술감독 정형일을 중심으로 컨템포러리 발레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정형일 Ballet Creative',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무용을 펼쳐나가는 'LDP 무용단', 부산의 발레 전공인들로 구성되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유니온발레단', 비보잉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통분야와 협업하여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을 만들어가는 '구니스 컴퍼니' 등 9개 단체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개막 축하공연인 '동해랩소디'는 거친 동해 바다의 이미지를 용신 처용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역동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평화와 순환이라는 생명의 모태인 바다에 대한 춤 의식으로 선보인다.

둘째날인 9월 12일에는 우리 춤의 전통과 대중적인 감성, 세련된 종합예술적 작업을 결합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유경무용단'과 발레가 가진 제한적 움직임과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며 발레의 대중화에 힘쓴 '김용걸 댄스시어터', 뉴욕 트리샤 브라운 무용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안무가 정재혁이 이끄는 '컴퍼니제이', 인도에서도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무용인 오디시댄스를 선보이는 '주한인도문화원부산', 지역 최초의 댄스스포츠 전문 공연단 '팀 빈체로', 전 멤버가 안무자로 활동하며 관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컨템포러리 댄스를 선보이는 '고블린파티', 1%의 영감을 99%의 노력으로 채우는 무용수들의 모임 '99아트컴퍼니', 그리고 지난 1981년 창단한 국내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 등 8개 팀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아마추어 동호회를 비롯한 부산시민들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 아마추어 단체들이 꾸미는 '시민단체참여무용'과 부산에 본거지를 둔 다양한 장르의 지역 무용단이 참여하는 '열린춤무대'는 9월 12일



컴퍼니제이 '유토피아 없는 곳'

초청팀 공연에 앞서 만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이슈토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심적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무용사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내년

에 열리는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2020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 연극, 경계를 허물다

9. 25^㉔ ~ 9. 27^㉕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두레라움 광장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부산국제연극제도 9월 25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연극제는 '연극,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삶의 일부가 되는 예술로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는 의미를 담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민다. 올해는 초청공연인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와 부산을 닮은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리트(Dynamic Street)',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를 위한 지역 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 그리고 축하공연 등

이 펼쳐진다.

연극제 기간인 9월 25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극단 '갈매기'는 부산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던 작품으로, 원형무대를 도입하여 극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한편, 관객들에게 색다른 판극 경험을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거리의 광장을 무대 삼아 연극, 마임, 음악, 무용, 신체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만날 수 있는 '다이나믹 스트리트'에서는 올해 모두 6개 팀이 참가한다. 한국의 미와 멋을 나타내는 전통장르에 비보잉을 접목시켜 창작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예술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구니스 컴퍼니의 국악과 비보잉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
051-802-8003
www.bipaf.org

의 만남 '미스테리우스'와 국내에 몇 안 되는 불을 이용하는 파이어 공연자인 퍼포머 박종원의 '불의 정령', 국내 최초로 그림과 마술 퍼포먼스를 접목시킨 융복합 공연단체 굿아트컴퍼니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드로잉 매직아트쇼 '얼라이브쇼', 2018 춘천마임축제 프린지 최우수 수상에 빛나는 매직서커스의 스토리가 있는 서커스 '공원에서', 연극, 인디밴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퍼포먼스 아트그룹 유상통프로젝트의 코믹 난버벌 퍼포먼스 '싸운드써커스', 춤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다원예술을 보여주고 있는 월유엔터테인먼트의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탈파-묵향의 전사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은 9월 25일 연극제 개막식에 앞서 영화의전당 로비에서 쇼케이스 무대로 선보인 후 26일과 27일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힘내라 부산!'에서는 저글링과 벌룬, 마술을 이용한 두 매직의 거리극 퍼포먼스 '뽀앤편쇼'와 국내 최초 인도마술사 컨셉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술사 박준영의 스토리텔링 매직퍼포먼스 '나마스떼쇼!', 사람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저글맨의 저글링 퍼포먼스 '저글맨쇼', 부산의 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산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풀어내고 있는 영플레이의 '조선 최초 서커스 부남사당' 등 4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제 기간 동안 영화의전당 로비 및 두레라움광장에서 열리는 축하공연은 모두 3개 작품으로, 2015년 '아메리칸 갓 탤런트 10'에 출연하면서 세계 최고의 팝핀 댄서팀으로 입지를 굳힌 애니메이션크루의 미술과 댄스가 융합된 '춤추는 미술관', 필리핀 극단 Free의 신비한 아크로바틱 동작에 코믹 요소를 가미한 '로날드 아크로바틱',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켜온 남산놀이마당의 신명넘치는 '풍물판굿'이 펼쳐진다.

이밖에 퍼레이드, 스타츄 마임, 풍선 아트 등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자유공연 '프린지'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된 부산국제연극제만의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예술체험ZONE'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부산시립극단 '갈매기'



구니스 컴퍼니 '미스테리우스'



두 매직 '뽀앤편쇼'



남산놀이마당 '풍물판굿'

음악, 치유를 위한 8가지 레시피

2020 부산 챔버 페스티벌 ‘4인 4색 4계 선율 속으로’

◆ 박진홍 음악평론가

●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도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한산한 부산문화회관 앞뜰을 내려다보며 느끼게 되는 여름이다. 지난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주최로 ‘2020 부산 챔버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에 음악으로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래서 준비된 8개의 공연에 각각 생명, 도전, 행복, 용기, 믿음, 낭만, 열정, 희망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필자는 15일 개막 연주를 찾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었지만 많은 음악애호가들과 부산 지역 음악가들이 객석을 찾았다. 입장 관객 건강 체크, 객석 거리두기 등의 방역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관객들도 이제 익숙해진 만큼 동요없이 차분하게 마스크를 쓰고 연주를 감상했다. 앞·뒤·좌·우에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넓게 앉아 관람할 수 있어 편하고 좋은 점도 있었다. 특히 리뷰를 위해 연주를 들으며 메모를 하는 필자의 경우, 늘 옆 관객에게 방해가 될까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연주의 시작을 기다리며 이번 챔버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8개의 부제가 붙은 공연을 맡은 연주자들과 연주곡, 그리고 관객의 이해를 돕고 홍보하는 설명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아쉬운 것은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바로크, 고전, 낭만의 현악 앙상블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크 정격 연주, 관악 실내악, 현대 작품들이 고루 배치되는 등 연주의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다양성을 겸비하여 폭넓은 실내악 감상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연주는 박성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지휘하는 BMF 챔버 오케스트라와 4명의 전·현직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임홍균, 김동욱, 신상준, 김복수, 그리고 챔발로 연주자 강형은이 함께 무대를 만들었다.

첫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중 Overture와 Alla Hornpipe가 연주되었다. 원곡은 현악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관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하지만 이번 연주에서는 현악기와 챔발로가 연주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편안한 연주였다. 다만, 악기 구성에서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각각 4대씩 총 8대가 있는 반면, 비올라가 2대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밸런스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날 연주 전반에 걸쳐 챔발로가 현악기의 소리에 묻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바로크 음악에서 통주저음(Basso continuo)을 담당하는 챔발로는 화성, 음색과 리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하지만 두터운 현악기군에 가려져 특유의 음색이 잘 들리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가 연주되었다.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무대였다. '봄'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장을 맡고 있는 임홍균이 솔로 바이올린을 맡아 간결하고 깔끔한 봄을 연주하였다. 임홍균의 바이올린은 섬세한 연주를 보여 주었는데 합주 바이올린군과 긴밀하게 조우하며 연주를 부드럽게 이어 나갔다. 2악장에서는 빠꾸기의 울음소리를 비올라가 표현하

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게 연주되는 가운데 비올라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소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 들던 연주와는 다른 힘 있는 표현으로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다. '여름'은 김동욱 교수가 맡아 화려한 여름을 선사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절제하고 솔로 바이올린의 화려함을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연주 내내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리고 휘몰아치는 연주가 매우 감동을 자아냈다.

'가을'은 신상준 교수의 솔로로 연주되었으며 감성을 담은 표현이 훌륭한 연주였다. 또한 다이내믹이 살아 있어 표현적이었던 연주가 인상적으로 와 닿았다. 필자 개인적으로 이날 연주 중 '가을'의 연주에서 챔발로를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현악기가 볼륨을 낮추어 솔로 바이올린을 받쳐 주는 챔발로의 음색이 조금 더 도드라져 듣기가 좋았다. 마지막 '겨울'은 김복수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대표가 연주했다. 흔히 우리가 듣는 겨울은 차갑고 차분한데 김복수 대표의 연주는 밝고 경쾌하며 희망을 품은 겨울을 느끼게 했다. 이날 연주의 부제가 8개의 레시피 중 생명이었는데,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이 아니라 생명을 틈을 준비를 하는 겨울을 떠올렸다. 2악장은 아주 밝고 열정적으로 연주했으며 과감하고 자신감 넘치게 마지막 악장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곡은 역시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이었다. 4명의 솔리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이 곡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연주되었다. 합주군과 독주 악기군과의 협주도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4명의 솔리스트들이 서로 세심하게 소통하고 합주군과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날레다운 굉장한 입체감을 주는 연주를 보여 주었다.

코로나19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올해 챔버 페스티벌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다. 해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내악에 관심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귀를 호강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시름을 흥으로 풀다

극단 골목길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 허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연극평론가

● 연극은 갈등의 예술이다. 한자어의 연극(演劇)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갈등을 관객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의 원형적인 모습은 계절과 계절의 갈등이다. 여름과 겨울의 갈등 말이다. 한편, 연극을 Drama라고 하기도 한다. 드라마는 Dramenon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있었던 혹은 있음 직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며 행동을 의미한다. 또 다른 용어로 영어로는 Play로 표기한다. ‘놀이’ 혹은 ‘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놀이는 자율적인 것이며, 그러기에 재미를 선사한다. 재미없는 것은 노동이며 노동도 재미가 있으면 놀이가 된다.

박근형의 작품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는 앞에 이야기한 동서양을 아우르는 연극의 핵심 요소이자 원론적인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박근형 작품은 늘 그러 해왔듯이 지금 이곳의 현실을 다룬다. 그러기에 표면적으로 낯설지 않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하게 들어온 3류(?) 이야기 들이다. 낯설지 않기에 다른 말로는 뻔한 통속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통속적 가족사를 통해서 동시대의 사회 문제로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로 통속적이면서 이를 벗어난다.

이제 농사가 천직이 된 창호. 그 시골집을 떠났던 식구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은 실패하고 찌든 삶을 살고 있다. 나름으로 비극적 삶의 기본은 다 갖추고 있다. 한때 유명인사로서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성추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동생(재철), 그의 부인, 감옥에서 출소해 돌아온 창식, 그리고 그의 아들(재호), 홀로 아기를 안고 온 재호의 부

Review



인 경애는 모두가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다. 이들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창호의 집에 찾아오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통해 허구적 미디어의 폐해, 성추문, 도덕적 붕괴 등 오늘날의 사회 모습들이 하나씩 껍질을 벗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목매 단 죽음으로 삶을 끝낸 재철의 모습은 화려함 뒤에 도사리고 있는 허위와 위선과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적 삶의 끝 모습이다. 박근형의 또다른 작품인 <너무 놀라지 마라>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죽음이다. 그의 죽음은 죽음과 쇠퇴를 의미하는 긴 겨울의 음습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긴 겨울의 의미긴 하지만 이에 대립하는 여름은 형인 창호네가 기르는 강아지 메롱이의 출산을 통해 새로운 삶이라는, 혹은 생산과 탄생이라는 희망의 끈을 보여준다. 더불어 재호의 처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아기 역시 우울하고 긴 겨울을 이겨 낼 수 있는 여름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가 데리고 온 아기의 역할이 반드시 화려한 축복받는 미래를 위한 생산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 또한 덥고 긴 계절 속에서 견뎌야 할지도 모르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에 반드시 비판적일 수는 없다. 불확실하지만 기댈 수밖에 없는 비유적 희망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극적이다. 갈등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창호 일가의 비극적 삶은 동시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다. 농사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창호, 그의 가족들을 무조건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창호의 아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온 현실이다. 그래서 슬플 수도 있다. 이 음습하고 긴 겨울을 지나가는 모습만 있다면 이 극은 지루한 연극으로 끝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박근형은 ‘놀이’라는 연극의 또 다른 형식을 불러온다. 마치 탈춤 판에서 본듯한 말장난 같은 예측 불허의 대사들은 자칫 맥빠지기 쉬운 상투적 대사를 살아있는 현실적 의미로 치환시킨다. 대사들이 주는 재미와 반어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의 가장된 엄숙성을 깨뜨린다.

특히 강아지 메롱이의 역할을 사람이 하도록 연출한 것은 연극의 놀이성을 통해 재미와 더불어 이 극의 흐름 속에서 잠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 관객은 쉬어가면서 이 집안의 상황을 반추하기도 하고 약간은 멀리서 이 상황을 평가하고 재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놀이적 요소는 뜬금없이 방문의 실루엣으로 등



장하는 대금 연주다. 대금 연주의 가락이 장면의 감정을 몰입시키지만, 논리적 개연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극의 진행에 크게 방해 주지 않은 것은 아예 그럴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보이는 작가의 능청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극 중 인물이 아니면서 극 중 인물같이 배치되어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메롱이처럼 소외효과를 달성한다. 작품의 감정을 고조시켜 몰입시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감정의 거리를 만들어 관객의 긴장감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주자의 숨겨진 모습(그림자)이 노출되면서 이 연주의 효용성은 극대화된다. 통속성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준다. 물론 연출의 의도가 반드시 관객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연출은 연극이 TV 드라마나 영화와 다른 공연성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근형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그의 작품을 모두 연구해보지는 못해서 이 글은 작가론일 수도 없고 논문일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몇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박근형 표 연극’이 여러 측면에서 호감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는 긴 겨울이 상징하는 절망감을 끝내지 않고 불확실하고 무더위처럼 짜증스럽긴 하지만 생산의 여름, 탄생의 여름, 성장의 여름에 대한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가 이 작품의 모티브로 한 김민기의 노랫말 ‘가뭄’처럼 현실의 암울함을 노래하지만 결국 ‘흥’으로 풀어가며 한 가닥 희망을 암시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작가의 숨겨진 욕망이 아닐까.

부산문화회관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Lyrical 서정적인

일 시 |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유주영 010-6630-5535



현재 부산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콰르텟 '클랑', 플루트 앙상블 '비엔토'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주영 독주회.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독,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유주영은 독일 유학시절 베를린 리아스 청소년오케스트라 객원주자로 활동하며 기량을 쌓았다.

귀국 후 부산음악협회 주최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독주회를 가진 바 있는 유주영은 이번 무대에서 쿨라우, 고베르, 보자, 드뷔시, 비도르 등 현대음악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피아노/성민주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12:00, 오후 4:0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침체된 부산 청소년 및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마련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참가팀
나우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이윤희)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김영민)
소명청소년관현악단(지휘/김재준)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오창목)
이안오케스트라(지휘/김하균)
가남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오륙도드림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박진홍)
천가은행나무오케스트라(지휘/권기현)
동향중학교오케스트라(지휘/김영민)
부산경남공고윈드오케스트라(지휘/최준호)
부산공업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지휘/박미선)

제8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이자 아베고 트리오, 트리오 레자미 단원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독주회.

장재혁은 2002년 서울 예고 재학 중 부산음악콩쿠르 우승과 함께 부산시

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 목관부문 수석으로 입학한 후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성정콩쿠르 1위, 한국클라리넷협회 콩쿠르 대상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협연한 바 있다.

파리국립음악원과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귀국한 장재혁은 솔리스트, 협연자, 실내악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피아노/김재원

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심하정 010-3284-942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뉴욕 주립대학(Purchase) 석사 및 연주자과정,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블 더 블로섬 리더, 앙상블 하모니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

가블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하정 독주회.

심하정은 American Protégé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등, 한국 피아노학회 주최 콩쿠르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독일의 3B로 불리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서영채, 정지유 조인트 리사이틀

일 시 | 9월 13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미정 010-6401-8846



피아니스트 최미정의 제자로, 연주자로 첫발을 내딛는 젊고 패기넘치는 피아니스트 정지유, 서영채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

바로크부터 고전, 낭만을 아우르는 전 시대에 걸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개성 강한 두 연주자가 들려주는 다양한 무대로, 무더운 여름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시원스럽게 뿜어나오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낄 수 있다.

고신 클라비어 창단 연주회
건반의 이야기들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고신 클라비어 010-9614-8088



고신대학교 피아노 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고신 클라비어의 창단 무대.

고신대학교 동문이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고은경을 주축으로 올해 1월 창단된 고신 클라비어는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피아노/안선애, 장진미, 김현경, 김미영, 김현정, 최여진, 김지원, 이성미, 김주아, 윤선혜, 조성희, 이하늘, 이은진, 최선경, 김효빈,
- 플루트/정승찬 • 첼로/이재성
- 테너/조윤환 • 소프라노/박연경
- 바이올린/조완수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황제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27-0188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클래식 대중화를 이끌어온 부산 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지역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2011년 5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받은 후 이듬해 9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부산 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 독일 본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협주곡인 '황제'를 들려준다.

- 지휘/김영수 • 피아노/유영욱

Quartet JACE 창단연주회 Classic Pandemic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Quartet JACE 010-9533-1736



거제시교향악단 악장, LIKE양상블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대전챔버오케스트라, 위즈엠 앙상블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란,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민영,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IPB챔버, 원더첼로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변은석으로 구성된 제이스 콰텟(Quartet JACE)의 창단무대.

올해 초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결성된 제이스 콰텟은 앞으로 화려한 기교와 테크닉뿐 아니라 깊은 감성을 자극하는 연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보로딘, 피아졸라 등 시대별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작곡그룹 An-ti Stimmung 20주년 기념 작품발표회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작곡그룹 An-ti Stimmung 010-9496-2687

지난 2000년 결성된 후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작곡그룹 An-ti Stimmung 20주년 기념 작품발표회.

프로그램

비 내리다(황선영), '무장한 사람' 선율에 의한 론도(정지영), 거문고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나나노'(김유리), Response(진소영), Des, Thomas Arirang(박기섭), 바라다(주창근), 거문고, 첼로, 그리고 타악기를 위한 '공간'(정수란), Egon Schiele의 그림에 의한 춤과 영상과 일렉트로 음악(진영민), 피리, 클라리넷, 타악기, 피아노를 위한 4중주 '대화' 2020(조희주).



(재)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연극 '결혼'

일 시 |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지난해 세익스피어의 '올리우스 카이사르'를 자체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재)대전예술의전당과 공동제작으로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특유의 풍자 와 해학으로 고찰한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결혼'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극계 황금곰바라 불리는 김광보 연출, 고연욱 작가의 신작으로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 젠더 스와프(gender swap,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성별 전환을 의미)를 활용, 원작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상황을 서로 바꿈으로써 원작보다 깊고 촌촌하게 짜인 의미망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나눔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The Magic Flute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나눔플루트앙상블 010-9371-8987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나눔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나눔플루트앙상블은 창단 후 국내외 초연작과 다양한 플루트 콰이어 작품들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에서 초연되는 현대곡들을 중심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소리의 조합과 음악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 Wil offermans/Forbidden valley
- Mike Mower/Ficion
- Wil offermans/Kotekan
- Kim Jongwan/These, Antithese, Synthese 등

로시니 작은 장엄미사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센텀합창단 010-6346-6058, 010-8519-0621



매년 다채로운 연주와 꾸준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센텀합창단이 다성 음악 전문 남성중창단인 '복스앙상블'과 함께 선보이는 무대 '작은 장엄미사'. 극음악에 대한 로시니의 천부적인 재능이 살아 있는 이 곡은 장중하면서도

부드럽고 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생기가 넘치는 곡이다.

이번 무대는 특히 코로나에 지친 관객들을 위로 하고 극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다.

- 지휘/이철성
- 피아노/박재나, 김효성 • 오르간/송예미
- 솔리스트/소프라노 김승영, 테너 장지현,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바리톤 우주호
- 여성합창/센텀합창단
- 남성합창/복스 앙상블

김덕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손성준 010-4214-1339



화려한 음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래식계의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독주회. 줄리어드 음악원 예비학교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우는 삼성문화재단상, Charles Petschek상을 수상하고 워싱턴 도로서 판행 포이어 쿡쿠르, 버지니아주 쿡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탈리 '샤콘느', 그리고 '소나타 제3번', 모차르트 '소나타 마단소',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영성

부산시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최석태의 부산칸타타 및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거리두기 좌석제 운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김 안드레 아르네센, 에릭스 에센발드, 올라 야일로의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운 현대합창곡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시립합

창단 전임 작곡가 최석태의 부산칸타타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고은하, 최석태의 부산 사랑 이야기'는 부산을 노래하는 시인 고은하가 스토리텔링을 맡은 작품으로 문텐로드, 오록도, 광안대교 등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7곳을 선정하여 각 명소에 걸맞는 시에 작곡가 최석태가 곡을 붙여 창작한 작품이다.

제23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일 시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연주를 지향하면서 소규모 편성의 관현악곡과 협주곡을 연주하는 단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임병원
- 바이올린1/임병원, 김은정, 김나영, 이기묘, 고은비
- 바이올린2/김은정, 서영희, 금성빈, 조혜란
- 비올라/최영식, 김민경, 권덕진
- 첼로/이동열, 김유미, 이우진, 홍승아
- 베이스/윤민우



독우회 제52회 정기연주회 Hi, Beethoven 네 손으로 듣는 협주곡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독우회 010-2802-1672



지난 1994년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52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매년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독우회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Hi, Beethoven'이라는 타이틀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에서 제5번까지 총 다섯 곡을 두 대의 피아노 버전으로 앙상블과 함께 들려준다.

- 피아노/김문주, 김진희, 이수정, 조혜영, 박아연, 심경숙, 김미성, 정보근, 박지은, 원영아
- 바이올린/손은혜, 정아람 • 비올라/정하람
- 첼로/변은석 • 플루트/장예지
- 오보에/박신영 • 클라리넷/이환석

작곡동인 세움 제9회 작곡 정기발표회 Pulse of music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작곡동인 세움 010-3338-1906

음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며 더 나은 창작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작곡동인 세움의 9번째 작곡 정기발표회.

'SEUM(세움)'은 'Study&Explore Unified Music'이라는 슬로건으로 클래식음악과 현대음악을 연구, 교류하며 음악적 활동과 사교를 더욱 확장하여 뜻을 세우고 발전하는 단체로 성장하자라는 뜻에서 명명한 이름이다.

- 작곡/진소영(작곡동인 세움 대표), 권태우, 조혜선, 김은진, 차성은, 최예린, 홍수민, 배성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0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매년 마련하는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있는 박상현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양대학교 국악과 4학년 김지연(태평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학년 이선영(해금),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학년(25현 가야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인 김의진(소금),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2학년 황진호(거문고),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이산(모듬북), 남천중학교 2학년 한민혁(모듬북), 동현중학교 3학년 김정우(모듬북) 등 오디션을 거친 유망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부산시민회관

2020 제39회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졸업작품 발표회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사무실 999-5301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4학년 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마련하는 졸업작품 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졸업 예정자 14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앞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히키모리(최은지), 조난(이제형), Good and evil(박연희), 스물 셋(권민지), 밤에도 그림자를 본다(조영주), J-424(김재희), Down the rabbit hole(송수민), 별(황제인), already seen(박지연), 도모지(이유정), Monsoon Night(허민지), 死시선(노은희), 잡생각(김혜란)



제7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창작 오케스트라의 밤.

김보현, 홍윤경, 방희연, 강영화, 배진인, 김성덕, 백자영, 김종완 등 부산지역 작곡가 8인의 창작 초연곡을 부산광역시음악협회 청년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의 연주로 들려준다.

올해 창단하는 부산광역시음악협회 청년오케스트라는 30세 이하 부산광역시 소재 음악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젊은 오케스트라로,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조우遭遇(김보현 곡), Looking for a rainbow(홍윤경 곡), 오감도(방희연 곡), Chromatic Polka for Orchestra(강영화 곡), Moving(배진인의 곡), 부산이여, 영원하라!(김성덕 곡), Falling in the Moonlight(백자영 곡), Vague(김종완 곡)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십이야

일 시 | 9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극을 한국적 미학과 마당놀이 형태로 재해석한 극단 여행자의 '십이야'. 극단 여행자의 '십이야'는 지난 2011년 전통예술과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서울남산국악당과

공동 기획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해외 고전을 한국의 미학, 전통과 접목시켜 새로운 해석과 이미지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극단 여행자의 대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남자배우만 출연하여 흡사 남사당패의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번 작품은 '남장여자'로부터 비롯되어 얽히고 엮이는 사랑의 에피소드와 코미디를 '남장여자', '여장남자' 등 작품의 구조와 연출 콘셉트의 구조가 뒤얽히며 더욱 위트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사)빛을나누는사람들
그 시절 부산의 노래 5

일 시 | 9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빛을나누는사람들 010-2833-3932

문화와 교육으로 사회공헌하는 공인법인인 (사)빛을나누는사람들이 매년 장애인, 소외층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193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을 소재로 창작된 노래의 배경이나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시절 부산의 노래' 다섯 번째 무대로, (사)빛을나누는사람들 이사이자 오보이스트로 활동 중인 지휘자 손양호가 지휘하고 '빛나사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에서부터 가요, 민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사)빛을나누는사람들
빛을나누는사람들 아트전 3

일 시 | 9월 29일(화)-10월 1일(목) 제1전시실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빛을나누는사람들 010-2833-3932

(사)빛을나누는사람들 이사이자 구필화가로 활동하는 김태완 작가의 요청으로 처음 시작된 '빛을나누는사람들 아트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주제로 한 전시로, 장애인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 전시에서는 수채화로 부산 풍경을 그리는 손영일(근육장애인) 작가를 비롯해 회원들의 작품과 올해 작고한 최영주(근육장애인) 사진작가의 유작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해외 장애인들의 휠체어 구입비로 사용된다.



2020년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뮤지컬 명작극장 '레 미제라블'

일 시 | 9월 29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12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명작극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올해는 '캣츠', '레 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뮤지컬 Big4를 비롯해 시대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명작을 대형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9월에는 오페라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과 더불어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레 미제라블'을 상연한다. 19세기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레 미제라블'은 1985년 초연 이후 토니상과 그레미상, 올리비에상 등 세계적인 권위의 주요 뮤지컬 상을 석권하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일 시 | 8월 28일(금)-9월 28일(월)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r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지난 2010년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올해 국가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음악제를 일부 축소하여 개최된다.

메인콘서트III '추억 Memories'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로, 현재 한국의 전문연주단체에 소속된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의 무대.

- 지휘/로만 분더
- 협연/안톤 콘드라첸코(첼로), 보리스 클라브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예크(보컬)

메인콘서트IV '영광 Spiritual'

9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국내외 연주자들로 결성된 BMIMF 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의 무대. BMIMF 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국제영상음악제

9월 2일(수), 9일(수), 16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 해외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는 국제영상음악제.

지난 2018년 음악제에 초청된 항저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2019년 초청단체인 샤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역대 음악제 참가팀과 우크라이나국립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베르겐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소개한다.

특히 이탈리아 알바뮤직페스티벌과의 MOU를 통해 음악제 오프닝에서 알바뮤직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작품을 소개한다.

메인콘서트V '꿈 Dreaming'

9월 3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로만 분더 지휘,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알렉산더 노슬(기타), 빅터 데미야노프(피아노), 알렉산더 노슬(기타), 티나(보컬) 협연으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

메인콘서트VI '우리 이야기 The great story' [콘체르토 컨피디션 갈라콘서트]

9월 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9월 5일(토) 낮 12: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스페셜 콘서트 '부산음악인시리즈'

9월 8일(화), 15일(화), 22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는 음악영재들과 라이징스타, 부산연주자들이 꾸미는 스페셜 콘서트 '부산음악인시리즈'.

- 8일 음악영재/최지유(피아노), 황예빈, 송주원, 이은빈, 이주은(이상 바이올린), 민채울(첼로), 이윤후(플루트)
- 15일 라이징스타/박예지(피아노), 현수인, 강나해, 황현(이상 바이올린), 이금빈(첼로), 김건희(플루트), 허예지, 성예림(이상 클라리넷), 이재은(더블베이스)
- 22일 부산음악인/나예지, 이수민, 김혜선, 김성주, 이성현(이상 피아노), 안수빈(첼로), 신승민(플루트)

양상블 콘서트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1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도서관

브라스밴드로서 최고의 리듬감과 균형감을 지닌 디시 밴드의 무대로 마련되는 양상블 콘서트. 바실리 볼로킨(색소폰), 알렉산더 카피텐코, 알렉시 보코브(트럼펫), 안톤 보고몰브(클라리넷), 알렉산드 그라신(드럼), 알렉산더 노슬(베이스), 타라스 올루브(튜바) 등 7인조로 구성된 디시 밴드는 그동안 그동안 재즈클래식과 팝 재즈, 엔틱 재즈 등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의 독특한 편안함과 익숙함, 흥과 즐거움으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프롬나드 콘서트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콘서트 오페라'

9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존인물이었던 프랑스 여배우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의 비극적 사랑과 죽음을 다룬 칠레아의 4막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를 소개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 지휘/오창록
- 연주/부산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출연/김현애, 강나래, 최희살, 양승엽, 김정권, 김화정, 안상철, 최대우, 유용준, 박기범, 성미진

피리에튀드

일 시 | 9월 2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거리두기 좌석제로 70명 한정)

문 의 | 예술술통 1800-4746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다양한 피리창작곡의 개발과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된 '피리에튀드' 첫 번째 무대.

그동안 다른 악기에 비해 다양한 주법과 특색을 살린 창작곡의 부족으로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독주악

기로서의 피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 무대로, 독주회가 가능한 창작 피리연습곡의 창작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피리·태평소 연주자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박순자가 주인공으로 박경훈, 박한규, 엄기환, 송정 등 4명의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피리/박순자
- 피아노/엄기환
- 타악/이현철
- 해설/윤종강

금정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음악극 '금어기행'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 의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산 금샘에서 노닌 금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

신동일, 오세일, 진소영, 백현주 등 부산에서 10년 이상 함께 활동해 온 부산작곡가단의 작곡가 4명이 공동 창작한 합창 중심의 독특한 창작음악극

'금어기행'은 드라마를 좀 더 강화하여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중간 형태의 흥미로운 음악극으로 선보인다.

- 작사, 연출/김지용
- 지휘/김강규
- 독창/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조윤환
- 합창/부산지휘자합창단
- 관현악/작고마당 챔버오케스트라

스페이스 옴 음악회

일 시 | 9월 4일(금), 10일(목), 18일(금), 25일(금)
 오후 8:00 스페이스옴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www.spaceum.kr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공연, 전시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옴 9월 무대.

4일(제393회) 윤보영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윤보영의 무대로 마련되는 제 393회 스페이스 옴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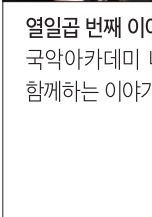
10일(제394회) Romantic piano pieces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1999년 전국 학생음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오승희와 부산글로벌리안 연합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하우스 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김정훈이 함께하는 낭만적인 피아노 릴레이 연주무대.

프로그램

Maybe, Kiss The Rain(이루마), Lake Luise(유키 구라모토), 왈츠 제7번(쇼팽), Joy(조지 윈스턴), 미녀와 야수 OST, 사랑의 인사(엘가), 소나타 K.332(모차르트), 헌정(슈만-리스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요한 슈트라우스), 라 캄파넬라(리스트)



18일(제395회) KLAON의 Midnight in Paris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피아니스트 박다은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가브리엘 피에르네, 드뷔시, 고베르, 쇼송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거신 ‘파리의 미국인’, 사라사테 ‘카르멘 환타지’를 들려준다.



25일(제396회) 나빌레라의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랑방
 국악아카데미 나빌레라의 흥겨운 국악연주와 함께하는 이야기 사랑방 열일곱 번째 무대.

제18회 짜장콘서트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1만원(선착순 20명 사전예약제)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짜장콘서트 9월 무대.
 음악의 저변확대 및 청년음악가의 발굴개발, 프로음악가의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출연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뒷풀이 기회도 제공된다.
 9월 무대에서는 동서대학교 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이지은, 청년음악가로 데뷔하는 베이스 강태영과 바이올리니스트 김가희, 첼리스트 이강수, 피아니스트 정은희로 구성된 프로 뮤지카가 출연,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과 맛깔나는 이야기로 관객과 만난다.
 • 진행/이진이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20회 정기연주회 Music Reborn by Piano

일 시 | 9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정은정 010-9074-1368



지난 1991년 음악대학 교수, 외래교수, 전문연주자 등 전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단체인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가 마련한 정기 연주회.

매년 수준높은 정기연주회와 전국 초청연주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온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는 이번 무대에서 ‘Music Reborn by Piano’라는 타이틀로 관현악곡, 오페라, 오르간곡, 실내악곡 등 여러 장르의 곡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뿐 아니라 대구, 울산 등에서 명성을 쌓아온 20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어울림 상설Series #11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클라리넷앙상블 플레이어즈 벅 ‘걱정말아요, 그대!’

일 시 | 9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클랄뿔(클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클래식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을 위해 클라리넷앙상블 플레이어즈 벅과 함께하는 무대. 지난 2014년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들로 결성된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로리스트 단체 플레이어즈 벅은 그동안 독주,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편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하여 관객들에게 클라리넷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연주/황남용, 권진우, 장일훈, 유지훈, 김정민, 이성은, 김다솔

방방곡곡 민간우수공연 초청 모던판소리공작소 춤춤:도시유람

일 시 |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판소리와 민요를 주축으로 연극, 월드뮤직 등 다른 장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창작 판소리극, 퓨전 국악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모던판소리공작소 춤춤의 민요 만담콘서트 ‘도시유람’.

이 시대 사람들과 동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며 신선한 재미와 따뜻한 감성으로 현대인을 위로해 온 모던판소리공작소 춤춤은 이번 무대에서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풍경에 한국 전통민요를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노래를 들려준다.

Sires 2. 이수인, 김효근 작곡가 한국가곡의 밤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가곡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가곡의 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가곡을 알리기 위해 매년 두 명의 작곡가를 선정,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이수인, 김효근의 작품을 비롯해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정순, 양라운
- 메조소프라노/이민정, 손혜은
- 테너/김화정, 방주원
- 바리톤/고정현, 고훈수
- 피아노/김아영

테너 문한솔 독창회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문한솔 010-6344-4956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 음대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문한솔 독창회. 독일 슈트트가르트 Hoch am Turm 2012~2014 페스티벌, 독일 빌헬름마극장에서 다양한 역으로 출연

해 호평을 받으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문한솔은 귀국 후 귀국독창회를 비롯해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예고,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문한솔은 이번 무대에서 리트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슈베르트의 대표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방은현

어울림 상설Series #13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퓨전국악밴드 비원의 창작국악 이야기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여러 장르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이 국한되지 않는 영역으로 뒤흔쳐나와 경계가 없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고자 지난 2019년 창단한 퓨전국악밴드 비원(悲願)의 무대.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비원은 장르의 경계없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만큼 한국음악의 구수한 음색과 가락, 서양음악의 화려하고 능수능란한 리듬으로 잘 어울린 맛깔스러운 음악을 선사해왔다.

- 피리/박태경 • 대금/김동현
- 드럼/유동일 • 건반/권은영
- 베이스기타/조영식
- 객원출연/전현정(판소리)

제75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금난새&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일 시 |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클래식음악 대중화에 앞장서온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지난 1997년 유라시안 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데뷔한 후 2014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여 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휘자 금난새의 명쾌하고 재치 있는 해설과 소프라노 김소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의 협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가야금 타는 사람 이야기

일 시 |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8909-0253



부산가야금연주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의 퇴임 기념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6회 정기연주회.

김남순 교수는 캐나다 벤쿠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초빙교수, 김해 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KBS 국악대상 현악부문, 제17회 봉생문화상 공연부문, 제12회 KNN 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예술감독/김남순
- 사회/윤중강 • 무용/장선희
- 노래/최윤영의 산유화어린이인민요합창단

제15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오페레타 '박쥐' 갈라 콘서트

일 시 |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협연무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74년 발표한 오페레타 '박쥐' 갈라콘서트로 마련된다. '박쥐'는 당시 오스트리아 빈 상류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풍자한 작품으로, 아름답고 흥겨운 왈츠와 폴카 리듬의 음악,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유머러스한 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정태미 • 음악감독/이소영
- 출연/장은영, 이현정, 권미현, 이지은, 박소연, 시영민, 김바위, 윤오건, 박상진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VII '함머클라비어'

일 시 |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지난 2012년 금호아트홀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대장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여섯 번의 베토벤 시리즈 연주를 통해 베토벤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이어온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소나타 제27번과 제28번, 제29를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개관 20돌 기획공연 오충근의 古古한 콘서트 I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 20돌을 맞아 고전음악(古典音樂)과 고전철학(古典哲學)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만남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 첫 번째 무대. '행복의 비브라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월요일저녁 행복세상을 이끌고 있는 부산교감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와 함께 행복을 통한 시대의 Soul백신을 찾아가다. 특히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 아래 이번 공연의 테마인 '인생의 가치를 발휘하는 행복의 울림'을 향해 조근호 변호사와 교감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서 느끼는 행복의 순간을 관객과 함께 탐험한다.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묘약

일 시 |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 전화예매)
문 의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010-5468-4658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16번째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부산시티오케스트라로 출범한 후 2011년 지금의 오케스트라로 재창단,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무대로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1970년대 영도를 배경으로 각색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테너 조윤환, 바리톤 윤오건, 소프라노 이지은, 베이스 권영기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해설이 있는 토요일클래식 '스페인&포르투갈'

일 시 |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신청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공연전문 해설가 김성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토요일클래식.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성민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해설을 1,000회 이상 진행했으며, 2016년 귀국 후에는 음악과 미술, 여행을 주제로 다수 기관에서 강의 및 공연전문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세 번째 강좌를 통해 만났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 이야기와 함께 연주자의 생생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수아제 하프콩쿠르 1위, 비엔나국제음악콩쿠르 대상 등 차세대 유망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하프리스트 황세희가 패리시 알바스의 '하프 협주곡 작품 81'을 한국초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작품 96
패리시 알바스/하프 협주곡 사단조 작품 81
차이콥스키/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특별출연/조근호(변호사)
- 협연/황세희(하프)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클래시컬 아티스트 특별 연주회

일 시 | 9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클래식 아티스트 010-3372-8015



부산지역의 클래식음악 전문가들로 결성된 클래식 아티스트가 코로나19에 처한 공연예술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한 특별한 무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담아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이자 영신치과 원장으로 있는 이영호 단장이 후원하고 클래식 아티스트 음악감독 다니엘S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이일세의 협연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고신 오페라 클래스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9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매)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사무엘 윤이 책임교수로 있는 고신 오페라 최고 연주자과정과 함께하는 영도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우리 가곡까지 다양한 곡으로 관객들과 만나다.

프로그램

토스티/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바그너/저녁별의 노래
스티븐 손드하임/어릿광대를 보내주오
우강학/사랑이 우리를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못 들고'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내가 길을 걸을 때' 등
수곡

연극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 7월 16일(목)-9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하기 좋은 날'.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전 여자친구 시연을 만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지후는 과거 자신이 어떤 남자친구였는지 궁금해져 호기심으로 시연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쓰레기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은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겪었을 현실연애를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물음피 '정의'

일 시 | 9월 2일-4일 수-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3:00 일터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인터넷 예약시 5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2년 연극을 사랑하는 부산의 청년들로 결성된 극단 물음피(?)의 스무 번째 프로젝트. 그동안 내부 극작전을 통해 당선된 창작희곡을 기반으로 그들의 색깔이 담긴 공연을 선보여온 물음피는 이번 무대에서 제7회 물음피 극작전 당선작인 '정의'를 무대에 올린다. 극심한 온난화에 허덕이는 2040년 지구.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정교일 박사의 연구만이 인류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영웅으로 추앙받던 정 박사가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인류를 구할 유일한 희망을 두고 여론 전쟁이 뜨거워지는데...

행사

뮤지컬 '제이미'-부산

일 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예명기획 1644-3901



가슴 따뜻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국을 사로잡은 화제의 뮤지컬 '제이미' 부산공연. 2017년 영국 셰필드극장에서 초연, 매진 사례를 이루며 대성공한 후 웨스트엔드로 옮겨와 오픈런 공연 중인 뮤지컬 '제이미'는 비평가와 관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웨스트엔드 대표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남몰래 드랙퀸을 꿈꾸는 고등학생 제이미를 통해 존중, 관계, 도전, 포용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제이미'는 세련된 컨템포러리 팝 음악과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 다각도로 변화하는 감각적인 무대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선사한다.

김옥균의 힐링클래식 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작곡가 탄생지 영상음악기행/라이프씨히(바흐), 작센(슈만)
비발디 '사계' 중 '가을',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스테타나 '피아노트리오 사단조' 등
작곡가 탄생지 영상음악기행/영국(헨델), 프랑스(생상스)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사라사테 '스페인 환상곡' 로시니 '슬픔의 성모', 그리고 '페르귄트 모음곡'

9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목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9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 콘서트 실황을, 목요일에는 베르디 오페라 26개 전 작품에 도전하는 '베르디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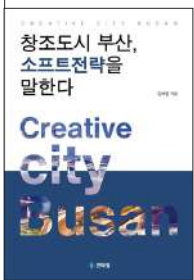
3일(목) 제14편 루이자밀러
10일(목) 제15편 스티펠리오, 제16편 리골레토
17일(목) 제17편 일 트로바토레
24일(목) 제18편 라 트라비아타

9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윤산의 논어아카데미, 목요일의 브런치는 무료)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화), 8일(화), 15일(화), 22일(화), 29일(화) 오전 10:00 **윤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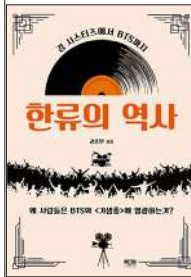
3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_동아시아를 조망하다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 강사/우주호(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창조도시 부산, 소프트전략을 말한다

7일(월) 오후 7:00 저자와의 북토크 '창조 도시의 DNA 부산의 소프트 전략을 말한다'
 • 강사/김해창(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8일(화) 오후 7:00 화화로 만나는 예도의 한류스타
 • 강사/현숙희(한일문화연구소 소장, 나오시마 도슨트)

10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 **우리결의 화학 이야기 '주방(廚房)의 화학'**
 • 강사/박찬영(부경대학교 명예교수, 공학박사)
 14일(월) 오후 7:00 사각사각 생각을 건다 **길의 시, 길의 노래(2)**
 • 강사/박창희(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15일(화) 오후 7:00 안수현의 미학산책 **'바쇼의 하이쿠'**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한국하이쿠연구원 연구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7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 **책과 이야기 '한류의 역사(강준만 著, 인물과 사상사)'**
 박태향, 우주호, 박찬영, 김정숙, 김우호 등 북토크와 함께하는 북토크.
 21일(월) 오후 7:00 김보명의 페미니즘 **영화 '밤젤로 보는 미투와 페미니즘'**
 • 강사/김보명(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2일(화) 오후 7:00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영화 세계(2) **'생애(life time)에 관한 영화들'**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24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 **'정해성의 문화공간' 고통과 치유의 예술(2)**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청도 문화공간 Raum-Y 대표)
 28일(월) 심진호의 예술기행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 영화 <보르도의 고야>를 통해 본 프란시스코 고야의 예술세계**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29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 **'퓨전에서 프리로: 다시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 강사/이기영(작곡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제155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일 시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5

일 시 | 9월 8일(화), 22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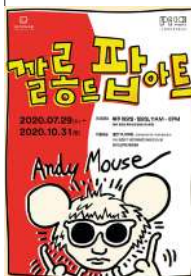


음악평론가 콰근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5: '베토벤과 그의 콘체르토'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9월 강좌에서는 베토벤이 쓴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서 바이올린 협주곡, 단편적인 콘체르토 피스 등 다양한 작품들을 유명 연주자들의 감동적인 영상음악으로 만나며, 18-19세기 비엔나의 문화, 정치적 환경과 의지의 프리랜서 베토벤의 독심에 관한 흥미로운 서사도 곁들인다.
 • 강사/콰근수(음악평론가, 인문학 강사)

전시

깔롱 드 팝아트

일 시 | 7월 29일(수)-10월 31일(토)
 피카프로젝트 해운대점
 입장료 | 전석 1만3천원 (초등학생 미만 무료, 보호자 동반 필수)
 문 의 | 피카프로젝트 02-543-6001



피카프로젝트 해운대점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깔롱 드 팝아트'展. 1960년대 이후 미국을 거쳐 전 세계를 뒤흔든 팝아트 작품들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로, 앤디 워홀, 장 샤를르 드 카스텔 바작, 키스 해링, 케니 샤프,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들을 팝아트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존의 팝아트 전시와는 차별화를 두어 무려 30억 원에 호가하는 키스 해링의 작품 10점, 앤디 워홀의 원화 4점이 동시 공개된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0 낮선 곳에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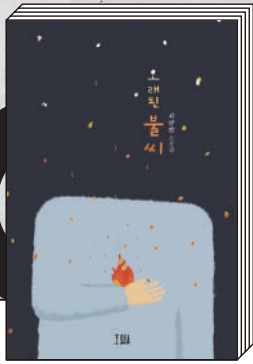
일 시 | 7월 17일(금)-10월 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44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Run Plain' 들판을 달리다

일 시 | 9월 4일(금)-9월 28일(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으로, 영도 절영마을 모티브로 말이라는 소재가 들어간 중진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



오래된 불씨

고금란 지음 / 호밀밭
252p / 1만 1천 700원

부산 이야기를 담아낸 고금란 소설가의 소설집. 고금란 소설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다. 1994년 계간지 <문단> 겨울호에 단편소설 <포구사람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농민신문에 농촌 소설 <그들의 행진>이 당선되었다. 그동안 5권의 소설집과 산문집을 냈다. 2011년 부산소설문학상을 수상했고, 현재 부산소설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나온 <오래된 불씨>는 6년 만에 독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설집이다. 영도에서 태어나 만덕동에서 살았던 고금란 소설가의 작품에는 '부산'이 많이 녹아 있다. '영도다리 난간 옆에'라는 소설은 영도다리 옆 마을에 살았던 기억을 녹여 쓴 작품이다. '깡깡이 아저씨' 일을 했던 어머니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형, 콜레라로 죽은 아줌마와 조선소 용접공을 하다 폭발 사고로 죽은 친구,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았던 옆집 누나, 그리고 생선 장사와 국밥 장사까지 인물은 생생하게 묘사된다. 온몸으로 '부산'을 살아냈던 고단한 삶에 바치는 이야기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7편의 작품은 마치 부산의 사회학적 기록을 소설로 다시 들려주는 듯하다. 그래서 더 와 닿는다.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통해 삶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은 작가세계가 느껴진다.



화가들의 정원

재키 베넷 지음, 김다은 옮김 / 샘터
352p / 1만 6천 200원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누구나 감탄한다. 그런데 이 정원이 명화를 탄생시킨 비밀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가. 시각예술을 다루는 화가들에게 정원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정원과 정원 속 식물들은 때에 따라 다양한 색깔, 모양을 드러낸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훌륭한 소재이다. 화가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에 깊이 감동하며 상상력을 넓혔다. 이 책은 정원을 가꾸고, 정원을 그린 화가들을 소개한다. 1800년대 중반, 유화 물감을 보관할 수 있는 튜브가 미국의 한 초상화가의 손에서 탄생했고 물감이 발명됐다. 화가들은 비로소 야외에서 자연 풍경과 정원을 그리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지베르니의 정원에서 모네는 수백 점의 걸작을 탄생시켰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고흐는 프로방스의 작은 정원에서 한 해 동안에만 15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다. 정원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들의 정치적 위기나 고난의 시기에 휴식과 성장,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 후반 멕시코시티에서 살아가던 프리다 칼로에게 '푸른집' 정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가들의 정원에서 그들의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안녕, 나의 순정

이영희 지음 / 놀
256p / 1만 4천 400원

소녀시절 보았던 순정만화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 시절도 되살아난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학교에서도 선생님 눈을 피해 보았고, 친구에게 빨리 보고 넘기라며 독촉도 하고, 그림도 따라 그려보던 시절이다. 1980~2000년대는 한국 순정만화 부흥기였다. 황미나, 신일숙, 김혜린, 이빈, 한승원, 이은혜, 한혜연, 박희정, 강경옥, 유시진, 문흥미, 이미라, 나예리, 천계영, 박은아... 그들이 만들어낸 그림과 이야기는 수많은 소녀들을 설레게 했다. '그 시절 내 세계를 가득 채운 순정만화'라는 부제는 그때의 마음을 담은 문구다. 이영희 작가는 2015년 에세이 <어쩌다 어른>에서 어린 시절 만화광이였노라고 일찌감치 고백한 바 있다. 이번 책에서는 순정만화를 유치한 심심풀이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세간의 시선에 반발한다. 그는 순정만화에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청춘 남녀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마냥 착한 여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주인공, 내면의 분노를 태우면서 권력을 향해 불꽃처럼 내달리는 여인도 나온다. 순정만화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꿈을 꾸었고, 희망을 만들어간 소녀들이 있었다. 한국 순정만화의 역사를 추억과 함께 보는 책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이정윤 선임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시립무용단 기대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에 이정윤(44세)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기 선임됐다.

부산 출신인 이정윤 예술감독은 한국 무용계 간판스타로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째 주역무용수로 데뷔한 후 국립무용단 대표 무용수로 자리매김하며 2014년 퇴단하기까지 수석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다. 이정윤은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무용학 박사를 수료했다. 지난 2018년부터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특채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으며, 자신의 무용단인 이정윤댄스시어터의 대표이자 무용수로서 국내외 다양한 공연예술분야에 참가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예술감독 선임은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통한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이정윤 예술감독은 제80회 정기공연 '남풍-South breeze'을 통해 평가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 창의적인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아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이정윤 예술감독은 "한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인 부산시립무용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시립무용단'으로 사회적, 예술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윤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공연은 오는 11월 5일과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20년 시민뜨락축제 개최

9월 18일(금)~10월 30일(금)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매년 봄과 가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재)부산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야외축제 '2020 시민뜨락축제'가 9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다섯 차례 개최된다. 지난 2017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 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들에게 예술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힘내라, 부산!'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통해 출연단체를 선정한 바 있다.

9월 18일 (사)문화쉼터 노신사밴드와 연관호 퀸텟의 무대를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이지아, 아카펠라그룹 비타민, 판프로젝트, 락밴드 'WINDA(윈다)', 국악 퓨전 프로젝트 팀 '뜨락', 뮤지컬 팀 '다ONE', 하지림 재즈밴드,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2020 시민뜨락축제 일정

- 9월 18일(금) (사)문화쉼터 노신사밴드, 연관호 퀸텟
- 9월 25일(금) 싱어송라이터 이지아, 아카펠라그룹 비타민
- 10월 16일(금) 프로젝트 팀 '판프로젝트', 락밴드 'WINDA(윈다)'
- 10월 23일(금) 국악 퓨전 프로젝트 팀 '뜨락', 뮤지컬 팀 '다ONE'
- 10월 30일(금) 하지림 재즈밴드, 부산시립합창단

2020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9월 14일 개강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수준 높은 강좌로 매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온 (재)부산문화회관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가 9월 14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수강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의공간에 대한 강력한 방역과 매 수업 모든 수강생들의 발열검사 후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인문학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인문·교양 수업들로 더욱 다채롭게 진행된다. 우선 매회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인문·교양 강좌들은 더욱 확대되어 돌아온다. 인기강좌인 이용숙 음악평론가의 ‘오페라하우스 인문학’은 이번 분기 고전발레와 드라마 발레를 주제로 탐구하며,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프랑스 음악’을 주제로 수업이 열린다. 지난해 연말 ‘모네 빛과 색’으로 완성한 회화의 혁명을 펴낸 허나영 박사는 ‘비너스’를 주제로 화가가 자신의 이상형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념과 예술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비평가 장원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미술에 대해 짚어본다. 그 밖에 북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 작가의 톡톡튀는 미술실기 ‘일러스트 드로잉:추상표현 익히기’, ‘Creative 북바인딩:여행기록’,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이장직 연구원의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수업도 이번 분기에 계속된다.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인문학 강좌로는 김성민 유럽문화해설가의 ‘유럽의 미술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과 벨베데레 궁전’, 함정임 교수의 ‘소설로 떠나는 러시아 여행’, 김태형 조향사의 ‘향수, 그 향기의 역사’, 김주미 작가의 ‘문장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등이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된다.

새로운 주제로 신규 개설되는 인문학 강좌들은 영화, 뮤지컬, 연극, 국악, 시, 재즈 등 문화예술의 전 분야를 다룬다. 영화를 매개로 한 ‘영화 속의 춤들’, ‘영화 속의 대중음악’, ‘영화로 읽는 이탈리아 기행’이 새로 개설되었으며, 19세기와 20세기의 뮤지컬 명작들을 알아보는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명작’ 수업도 수강생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가을을 맞아 난해하지만 익숙한 재즈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가을에 만나는 JAZZ’와 국악과 가요가 만나 탄생한 신민요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알아보는 ‘새로운 민요, 신민요 이야기’ 등도 시민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그 외 ‘한국무용의 흐름과 비평’, ‘인류문화의 보고, 중국 바로 알기’, ‘현대음악:코로나19로부터의 울림’ 등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풀어줄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기강좌 역시 이번 분기에도 계속된다.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수준 높은 지도로 이뤄지는 거문고, 첼로, 가야금, 해금 등 악기 수업과 한국무용 수업들은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강좌들로 매분기 많은 수강생들이 찾고 있다.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8. 25(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 051)607-6000

강좌명	일정	시간	장소	수강료
그림 속 오페라 2	9. 7.~9. 28. 월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소설로 떠나는 러시아여행	9. 14.~10. 5. 월요일(4회)	19:00~21:00	강의실	80,000
영화 속의 대중음악	9. 14.~10. 5. 월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가을에 만나는 JAZZ	10. 5.~10. 26. 월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영화로 읽는 이탈리아 기행 : '영원한 도시' 로마	11. 2.~11. 23. 월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명작들(19C~21C까지)	10. 6.~10. 27. 화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인류문화의 보고, 중국 바로 알기	10. 6.~10. 27. 화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영화 속의 춤들	10. 7.~10. 28. 수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최초의 시 쓰기 : '다른 삶은 있는가?'	10. 7.~10. 28. 수요일(4회)	15:00~17:00	강의실	80,000
전통에서 컨템포러리까지 한국무용의 흐름과 비평	10. 8.~10. 29. 목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연극사의 명작 희곡읽기	10. 8.~10. 29. 목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근대의 풍경 - 새로운 음악, 신민요 이야기	11. 19.~12. 10. 목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문장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11. 6.~11. 27. 금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유럽의 미술관 :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 벨베데레 궁전	11. 20.~12. 11. 금요일(4회)	10:00~12:00	강의실	80,000
현대음악 : 코로나19로부터의 울림들	11. 20.~12. 11. 금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향수(Le parfum), 그 향기의 역사	11. 21.~12. 12. 토요일(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마음으로부터 연극!	9. 14.~11. 16. 월요일(10회)	19:00~21:00	연습실	12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9. 14.~11. 16. 월요일(10회)	10:30~12:30	아트랩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9. 14.~11. 16. 월요일(10회)	14:00~16:00	아트랩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9. 15.~11. 17. 화요일(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일러스트 드로잉 : 추상표현 익히기	9. 15.~11. 17. 화요일(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이용숙의 오페라하우스 인문학 고전발레와 드라마발레	9. 16.~11. 25. 수요일(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Creative 북바인딩 : 여행기록	9. 16.~11. 25. 수요일(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9. 16.~11. 25. 수요일(10회)	19:00~21:00	강의실	15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화가가 그린 비너스	9. 17.~11. 26. 목요일(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현대미술사	9. 19.~12. 5. 토요일(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응용)	9. 19.~11. 28. 토요일(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9. 19.~11. 28. 토요일(10회)	15:00~17:00	강의실	150,000
거문고 A	9. 14.~11. 16. 월요일(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해금(중급 A)	9. 15.~11. 24. 화요일(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해금(중급 B)	9. 15.~11. 24. 화요일(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사물놀이	9. 15.~11. 17. 화요일(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가야금 A	9. 15.~11. 24. 화요일(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9. 15.~11. 24. 화요일(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9. 15.~11. 17. 화요일(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 (한영숙류 태평무)	9. 15.~11. 17. 화요일(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거문고 B	9. 16.~12. 2. 수요일(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한국무용(기초)	9. 16.~11. 25. 수요일(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9. 16.~11. 25. 수요일(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지휘자클래스	9. 16.~11. 25. 수요일(10회)	19:00~21:00	강의실	360,000
라인댄스(중급)	9. 17.~11. 26. 목요일(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해금(초급)	9. 17.~11. 26. 목요일(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한국무용 (강태홍류 부채산조)	9. 17.~11. 26. 목요일(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춤추는 현대무용	9. 17.~11. 26. 목요일(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프리미엄 발레	9. 18.~12. 4. 금요일(10회)	14:00~15:2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9. 18.~12. 4. 금요일(10회)	10:30~12: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9. 18.~12. 4. 금요일(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9. 18.~12. 4. 금요일(10회)	16:00~17:30	레슨실	120,000
첼로 A	9. 19.~11. 28. 토요일(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9. 19.~11. 28. 토요일(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전시관람기
+

부산시민회관 47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다

배정행 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47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 지난 7월 3일, 내 젊은 시절 로망이 서려있는 부산시민회관에 가게 되었다. 과거에는 없었던 광장의 분수대를 지나 설레는 마음으로 회관 대극장 입구에 들어섰다. 이날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 행사에 초대받은 아내와 내가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대극장 2층으로 우선 올라갔다. 이곳에서는 부산시민회관 47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특별전 '그 기억과 흔적 사진'이 열리고 있다. 이 특별한 사진전에는 그동안 내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자료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예술적 에스프리가 흠뻑 느껴지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의 전시장에서는 부산시민회관 초창기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50여 년 전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초대지휘자였던 오태균 선생과 당시 교향악단 단원들을 비롯해 내가 한때 지휘자로 있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초대지휘자였던 지주섭 선생과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출연했던 오페라 프로그램과 공연 장면을 담은 사진 등 그동안 먼지 속에 잠자고 있던 자료들이 멋진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이 특별한 전시를 위해 부산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희귀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멋있게 전시해준 직원들의 수고는 상찬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1층 공연장으로 다시 내려갔다. 개관 당시 투박하기만 하던 객석은 새롭게 단장하여 어여쁜 새색시 마냥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이날 기념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베토벤 교향곡 '운명' 제1악장에 이어 '코랄환타지'가 연주되었다. 특히 '코랄환타지'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아름다운 소리와 오케스트라, 합창 연주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기획자의 지혜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특히 공연장의 생명인 음향도 까다로운 내 청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지난 1973년 10월 10일은 부산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한 날이다. 당시 풋내기 성악가였던 나는 그 개관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거제도 뱃노래'를 불렀다. 개관 후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수많은 오페라와 독주회, 독창회,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988년 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개관되면서 부산시민회관은 차츰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번 대극장 재개관을 시작으로 이제는 부산시민회관이 새로운 범일동 시대를 열어 힘차게 비상할 것을 이 늙은 첫사랑이 소망 또 소망해본다. 부산시민회관 만세!!



극장장의 손 편지 ⑱

예산 철에 '예산타령' 좀 하겠습니까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지난 손편지 6호(2019.8)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에서 공연예술의 '시장실패' 속성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연예술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면, 그냥 그러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정부더러 지원을 해라 마라, 개인이나 기업을 보고 기부를 해라 마라 할까요? 안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써야 할 곳이 오죽이나 많으며, 예술에 앞서서 기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인가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자체가 문제인 인구도 적지 않은데다 88만원 세대는 둘째 치고라도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또 얼마인가요.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정부가 60조에 가까운 돈을 추경으로 풀었고, 또 장마 피해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곳들이 모두 해결이 된 다음에나 예술을 돌아봐야 하는가? 뭐, 그렇게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술에 대한 지원은 멈춘 적이 없으니까요. 국가에 따라 많고 적음이 문제겠지만요.

과거 세계 예술계에서 자주 회자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에 이어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된 존 아담스가 파리대사 시절에 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글귀가 그것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군사를 공부해야 하는 세대라면 우리 아들딸들은 과학과 기술, 경제이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음악과 미술이다." 당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임



을 감안하면 이 글귀가 미국의 장기적인 갈 길을 잘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글귀는 논쟁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짐작하다시피 문화나 예술이란 정치나 안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까지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공약집을 보면 문화와 예술은 맨 나중에 아주 작은 자리를 겨우 차지하거나 아예 그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비부터 줄이거나 문화예산부터 손대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즘은 그랬다간 여론의 못매를 맞기 일쑤지만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문명사회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풍요이며 예술을 통해 그것이 충족된다는 다른 해석이 곧 뒤따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국가의 발전 단계별로 이를 풀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타협이 되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정치나 경제적으로 기초가 없을 때는 그 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옳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이 고도의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논리는 18세기 미국과 같이 허허 벌

판에서 국가를 처음 세우야 하는 경우이나 맞을 법한 것이겠습니다. 5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안보는 끝이 없으며 경제란 생래(生來)적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늘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가난한 사람 많고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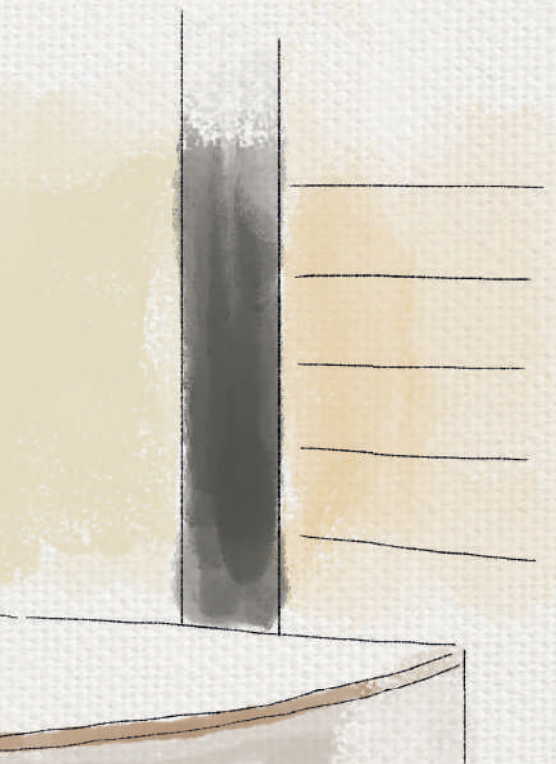
이제 예술에 왜 지원이나 기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사실 예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왜 지원이나 기부가 당연한 것인지는 대개 아는 일이니 구구절절 사족을 더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깊은 상상력으로 탄생되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예술은 개인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오락이면서도 선의의 감성과 창의력을 복돋우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게 이끌며, 사회적으로는 집단 간의 소통과 선의의 공유, 정신적 치유를, 도시에는 미적 정취와 경제적 유발 효과까지, 더불어 한 나라에는 품격이나 자존감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든 시기, 많은 인간관계가 긴장과 불안 속에서 거부, 단절되어 가는 시기, 일부 종교마저도 이런 저런 질타를 받고 있는 시기, 이런 때일수록 예술이 건네는 심심한 위로와 소통, 연대의 감성이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이른바 '예산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술계도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세수가 줄어든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담당 책임자나 부서는 어느 때보다 골머리를 앓을 테죠.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저희 같은 공공 공연장도 막막합니다. 민간예술계가 어려운 만큼, 지역 예술가들을 돕고 시민 서비스도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공공 공연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공연 예산의 속성이란 것이 또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시장실패'를 이야기했던 보몰(W. J. Baumol)과 보웬(W. G. Bowen) 두 학자는 길게는 100년간의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말합니다. 공연비용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2~10배이고 수입 증가는 거기에 늘 못 미친다는 것을. 그러니 작년과 같은 예산 규모라면 공연의 횟수와 규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정말 악몽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렵다 하니 그 재원을 끌어들이는 일도 만만치 않게 되었고요.

예산타령으로 이렇게 긴 사설을 늘어놓았을까요? 예산타령이란 보통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변명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무어라고 해야 하나요? 너도 나도 힘겨운 예산 철을 지혜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 2>

시민 | 소극장 5.28.(목) 3:00pm,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햄릿>

문화 | 중극장 5.30.(토) 3:00pm
All Seats 20,000원



2020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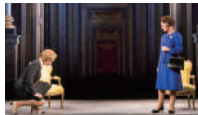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6.12.(금)~6.14.(일)
금 7:30pm 토 3:00pm, 7:00pm 일 3:00pm
R 88,000원 S 66,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문화 | 중극장 6.27.(토) 3:00pm
All Seats 20,000원



'그래, 삶이란 이런 거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시민 | 소극장 7.31.(금)~8.1.(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연극계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욱 작가 신작

<결혼> 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문화 | 중극장 9.18.(금)~9.20.(일) 금 7:30pm
토일 3:00pm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셰익스피어의 열두밤 이야기

<십이야(十二夜)>

시민 | 소극장 9.26.(토)~9.27.(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발레 / 무용

원작자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문화 | 중극장 7.25.(토)~7.26.(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거대한 스윙재즈 클럽의 열기 속으로!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취소]

문화 | 대극장 8.28.(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온미 컴퍼니 <A-드래곤> [잠정연기]

문화 | 중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클래식

프렌치 베토베니언의 베토벤 소나타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취소]

문화 | 챔버홀 6.16.(화) 7:30pm
All Seats 30,000원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취소]

시민 | 대극장 7.15.(수) 7:30pm
R 11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취소]

문화 | 대극장 9.25.(금) 7:30pm
V 120,000원 R 90,000원 S 60,000원 A 30,000원



오스모 벤스케 지휘 × 이지운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문화 | 대극장 10.30.(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dieu 2020 & Happy New Year 2021

2020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목)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새해를 여는 천상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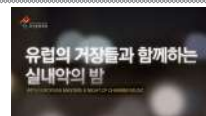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1.1.23.(토)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문화 | 중극장 2021.2.21.(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마티네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문화 | 중극장 4.24.(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문화 | 중극장 5.29.(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문화 | 중극장 7.31.(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 [취소]

문화 | 중극장 8.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문화 | 중극장 10.30.(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문화 | 중극장 12.8.(화) 11:00am
 All Seats 10,000원



오페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2020 부산오페라 Week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 중극장 10.10.(토)~10.18.(일)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우수레퍼토리 앵콜공연
오페라 <리골레토>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2021.2.26.(금)~2.27.(토)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국악 / 창극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시민 | 소극장 4.23.(목) 목 7:3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원작보다 강하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찌고 옹녀>
문화 | 대극장 7.17.(금)~7.18.(토) 금 7:30pm 토 3:0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킹스턴 루디스카 x 연희컴퍼니유희
유희스카
문화 | 중극장 11.5.(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 탱고

피아졸라 탱고 앙상블의 진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문화 | 중극장 9.24.(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9.27.(일)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Hopeful Tomorrow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취소>
문화 | 대극장 11.2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OST 오리지널 밴드
<동물원 콘서트>
시민 | 소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5:00pm
 R 55,000원 S 44,000원 * 패키지 제외



아트서커스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세븐 핑커스 <여행자> <취소>
문화 | 대극장 6.12.(금)~6.13.(토) 금 7:30pm 토 3: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지역프로젝트

한여름밤의 실내악 축제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일부일정 취소>



문화 | 중극장 & 챔버홀 8.15.(토)~8.29.(토)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잠정연기>
문화 | 중극장 9.3.(목)~9.5.(토)
 목·금 10:30am, 1:30pm 토 11:00am, 2: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브랜드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14.(토)~11.15.(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28.(토)~11.29.(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어린이 / 가족

범인을 찾아라!
<프랭키와 친구들> <취소>
문화 | 사랑채 7.1.(수)~8.2.(일) 11:00am
 (월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극단 학전 &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시민 | 소극장 7.3.(금)~7.4.(토) 금 10:00am
 토 11:00am, 3:00pm / R 30,000원 S 20,000원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취소>
문화 | 사랑채 9.15.(화)~10.2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세 마리 펭귄의 우정 이야기
<8시에 만나>
문화 | 사랑채 11.10.(화)~12.13.(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2020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558회 정기연주회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6.(목)~1.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59회 정기연주회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2.14.(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0회 정기연주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3.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1회 정기연주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잠정연기]

문화 | 중극장 3.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2회 정기연주회

Cheers! 짤!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4.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3회 정기연주회

모호함과 확고함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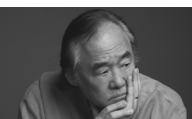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5.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인 '미완성음악회'로 대체



제564회 정기연주회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문화 | 대극장 6.19.(금)~20.(토) 금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5회 정기연주회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문화 | 대극장 7.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6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9.23.(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7회 정기연주회

unique 개성

문화 | 대극장 10.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8회 정기연주회

Frame 틀

문화 | 중극장 11.10.(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9회 정기연주회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문화 | 대극장 11.24.(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0회 정기연주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교향악단 _ 기획음악회

BPO Thanks Concert

부산시향의 感謝감사 [취소]

문화 | 중극장 2.24.(월)~2.25.(화) 2:00pm
All Seats 5,000원



BPO Open Door Concert

부산시향의 나눔 [취소]

문화 | 중극장 3.26.(목) 11:00am, 4:00pm
All Seats 10,000원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4.29.(수) 7:30p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공연 온라인 생중계



BPO Family Day
부산시향의 가족음악회

문화 | 대극장 5.29.(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Open Rehearsal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6.17.(수) 7:30pm
All Seats 5,000원



BPO Romantic Night
부산시향의 로맨스

문화 | 중극장 7.7.(화)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Youth Concert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 친구

문화 | 대극장 8.11.(화) 3:30,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Kids Concert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취소]

문화 | 중극장 9.10.(목)~9.11.(금) 11:00a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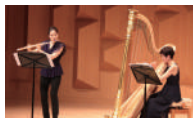
BPO & Young Solists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10.8.(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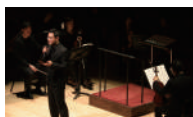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10.3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Night Lab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12.9.(수) 9:00pm
All Seats 10,000원



합창단 _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시리즈 II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취소]

문화 | 대극장 3.31.(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의 달 기념 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문화 | 대극장 6.2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1회 정기연주회
최석태 부산 칸타타 & 창작합창곡

문화 | 대극장 9.22.(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2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합창단 _ 특별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취소]

문화 | 중극장 5.21.(목)~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문화 | 중극장 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가요합창음악회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 - 김동률 편

문화 | 대극장 7.23.(목) 8:00pm
R 20,000원 S 10,000원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0.19.(월)~10.22.(목) 6:00pm
All Seats 무료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취소]

문화 | 대극장 11.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무용단 _ 정기공연

제81회 정기공연
**수석안무자 선정공연 2
<Odyssea FE2020b>**

문화 | 대극장 7.30.(목)~7.31.(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82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취임공연

문화 | 대극장 11.5.(목)~1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2013년 무용공연 작

무용단 _ 특별공연

특별공연
2020 우리춤 산책

문화 | 사랑채 5.7.(목)~5.8.(금) 7:30pm
All Seats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특별공연
2020 춤추는 동화 [취소]

문화 | 사랑채 5.11.(월)~5.22.(금)(토, 일 제외) 11:00am
※단체공연에 한함



특별공연
2020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문화 | 중극장 8.20.(목) 7:30pm
All Seat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정기연주회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취소]**

문화 | 대극장 2.25.(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5회 정기연주회
김종욱 제9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문화 | 대극장 5.30.(토) 5: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문화 | 중극장 6.26.(금) 8: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7회 정기연주회
창작실내악

문화 | 챔버홀 11.25.(수) 8:00pm
All Seats 10,000원



제20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3.(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신년다례연(新年茶礼宴)

문화 | 대극장 2.4.(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雅樂의 밤

문화 | 챔버홀 5.21.(목) 8:00pm
All Seats 10,000원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중극장 7.14.(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9.25.(금) 8: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풍류' 명가·명창·명무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0.(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극단 _ 정기공연

제67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취소]
시민 소극장 4.6.(월)~4.11.(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문화 대극장 7.3.(금)~7.12.(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20,000원



제69회 정기공연
체흐의 이야기
시민 소극장 11.12.(목)~11.14.(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극단 _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취소]
금정 대공연장 8.22.(토)~8.23.(일) 5: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취소]
문화 사랑채 4.16.(목)~5.4.(월)
평일 11:00am / 주말 3:00pm
5.5.(화) 11: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6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취소]
문화 대극장 4.3.(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4회 정기연주회
Never Ending Story(이야기) [취소]
문화 대극장 9.1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5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Travel to America'
문화 대극장 12.22.(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위로
문화 중극장 8.14.(금)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문화 챔버홀 10.24.(토)~10.25.(일) 7:30pm
All Seats 무료



특별연주회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대극장 11.17.(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57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Season II [취소]
문화 대극장 5.30.(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8회 정기연주회 [취소]
문화 대극장 9.12.(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9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대극장 12.19.(토) 5:0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문화 대극장 7.25.(토) 5:00pm
All Seats 2,000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취소]
문화 중극장 8.21.(금)~8.22.(토) 5: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대극장 11.7.(토)~11.8.(일) 5:00pm
All Seats 무료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12월 8일(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김준수, 두번째달 '팔도유람' 취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취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취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5월 28일(목)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종료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종료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연극 '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종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 8월 29일 공연 제외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취소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종료

9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종료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잠정연기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아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종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607-611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주)선광 대표이사
 윤영기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숙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창작대본 공모전



공모개요

COLLUSION SUMMARY

- ✓ **공모목적**
 - 부산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 사업 확대
-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
※ 나이·지역·분량 제한 없음, 부산 관련 창작대본에 한함
- ✓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시 신청할 수 없음
 -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 공연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 타 지원사업 선정 작품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 ✓ **최종선정 대상 작품은 (재)부산문화회관과 계약체결 후 제작 지원가능**
※ 계약 시 필요서류 제출

수상내용

AWARD CONTENT

-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수상자에게는 상금(각 700만 원),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 (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 없을 시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심사방법

SCREENING METHOD

-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창작극 대본 심사(분야별)**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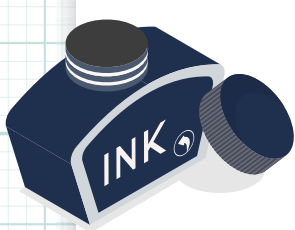
APPLY

- ✓ **공고기간** : 2020. 6. 24.(수)~12. 15.(화)
- ✓ **접수기간** : 2020. 10. 20.(화)~12. 15.(화)(57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mlee78@bscc.or.kr) 접수
※ 3일 이내 접수회신메일 미수신 시 반드시 확인필요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저작권 관련 계약서(선정작에 한해 필요시 제출)

문의

QUESTION

-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607-6121)**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부산 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



공모개요 COLLUSION SUMMARY

- ✓ **공모목적**
· 부산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부산 문화 진흥
- ✓ **공모부문**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 작성(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 / 글자크기 11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 형식 상관없음)
- ✓ **신청자격**
부산 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

수상내용 AWARD CONTENT

- ✓ **중·고등부(9명)**
대상(교육감상) 30만 원 1명 / 최우수상 20만 원 3명 / 우수상 10만 원 5명
- ✓ **일반부(6명)**
대상(부산광역시장상) 50만 원 1명 / 최우수상 30만 원 2명 / 우수상 20만 원 3명
- ✓ **부상 : 회원권(5만 원 상당)**
※ 수상자에게 상금, 트로피 및 부상 수여
※ 일반부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분야 선정작 없을 시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심사방법 SCREENING METHOD

- ✓ 공개모집을 통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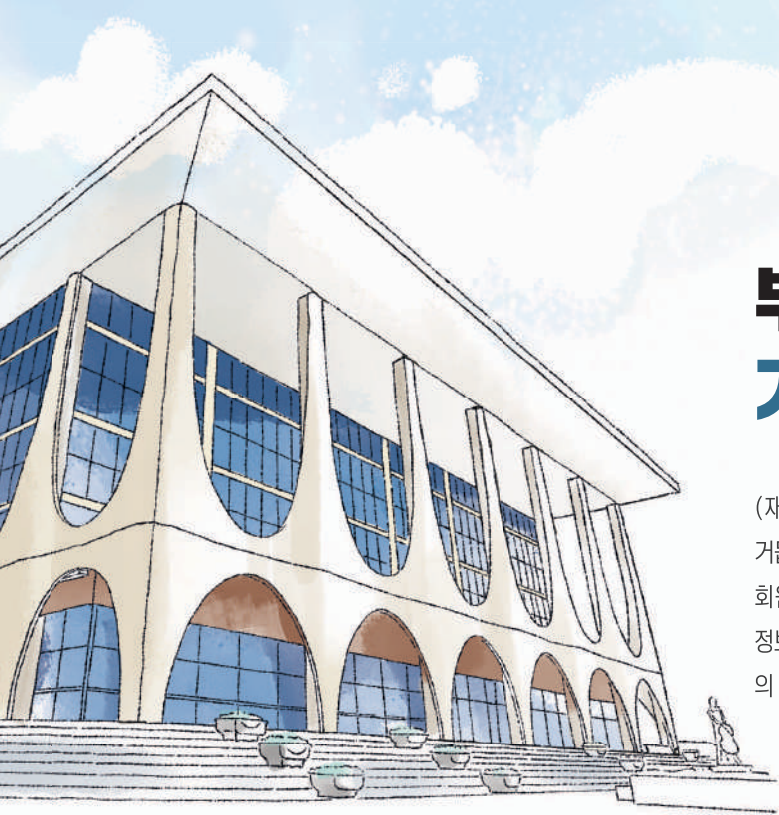
신청방법 APPLY

- ✓ **공고기간** : 2020. 6. 24.(수)~11. 30.(월)
- ✓ **접수기간** : 2020. 10. 20.(화)~11. 30.(월)(42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mlee78@bscc.or.kr) 접수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감상문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 **결과발표**
2020년 12월 중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문의 QUESTION

-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607-6121)





일상을 컬러 **플러스** 하게
문화를 파워 **로**

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 EVENT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0년 7월 1일(수) ~ 12월 31일(목)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1년 1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 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 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 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상품권(2만 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 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_____ 아 이 디 _____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_____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 때 일 _____

주 소 _____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020. **10.8** THU 7:3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비제 · 「카르멘」 서곡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1번 中 제1악장
훔멜 · 트럼펫 협주곡 中 제1악장
이투랄데 · 페퀘냐 차르다
크레스톤 · 오케스트라와 마림바를 위한 소협주곡 中 제3악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민형
플루트 이윤후
색소폰 이현진
트럼펫 백도영
마림바 서보준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1년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대관내용

- ▷ 대관기간 : 2021. 1. 1. ~ 2021. 6. 30. (6개월)
-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대관 공지사항 참조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8. 31.(월) 09:00 ~ 2020. 9. 11.(금) 18:00

-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 전자우편
부산문화회관 : **극장** rent@bscc.or.kr **전시실** gjh1834@bscc.or.kr
부산시민회관 : **극장** bch@bscc.or.kr **전시실** mayday@bscc.or.kr
- ▷ 결과 회신 : 10월 초(예정)

대관 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대관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온라인, 전자우편 접수 동일하게 적용)
- ※ 세부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30%)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계약금을 제외한 70%)
공연/전시 예정일 30일 전(대극장은 60일 전)까지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부가세별도 부과

문의

-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07-6055 / 전시실 051-607-6073
-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30-5232 / 전시실 051-630-5235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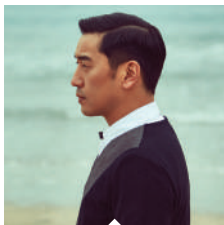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24^{Fri}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5.29^{Fri}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중화



7.31^{Fri}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8.28^{Fri}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윤트



10.30^{Fri}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12.8^{Tue}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영광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오전 11시 전석 10,000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051-607-6000) | 협찬 SHINSEGAE |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마티네 패키지 안내 | 마티네 콘서트 6권 동시 구매시 30% 할인 | 4권 이상 동시 구매시 20% 할인 | 3권 이상 동시 구매시 10% 할인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9.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타센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08번길 5
051)505-89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0 09 SEPTEMB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극단 여행자 십이야 十二夜

2020. 09. 26. Sat.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09. 27. Sun. 3pm

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출
양정웅

협력연출
이대웅

출연
이국호 장현석
한상훈 김진곤
조찬희 한인수
최경훈 김호준
김명연 김해중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